

면목,
마을에 살다.

2023년 실천 기록

<면목, 마을에 살다> 발간사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영미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별 복지팀으로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기반으로 활동해온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잇고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을 거들며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함께한 활동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실천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러웠던 시기에도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에 꾸준히 나가 활동하였습니다.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관계를 이으며 지역의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자 일하고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중반에는 마을활동 이야기와 성과를 공공기관과 지역주민분들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하여, 복지관이 지향하며 일구어가고 있는 일들을 알리고 더욱 힘을 받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23년 <면목, 마을에 살다>에는 면목4동, 면목7동, 면목3·8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진행한 주민 모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한 동네축제, 동별 특성에 따라 지역에서 협력하며 함께해 온 활동의 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주민들이 참여

할 뿐만 아니라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함께해나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주민의 애기에 더 귀 기울이고 돕는 역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복지관에 연계하고 사업이나 행사 홍보처 역할을 해주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돕기 모금사업을 제안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 팔순 구순 잔치에 마음이 듬뿍 담긴 가게의 먹거리와 물품들로 선물을 마련해주시고 동네 축제도 함께 만들어가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동반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힘을 모으고 늘 함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새로운 일도 추진할 수 있고 서로를 돌보는 동네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동안 주민들과 가까이서 만나고 활동거리를 만들며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애써온 과정을 정리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감이 듬뿍 느껴지는 활동의 기록들이 동료 사회복지사들 또한 지역주민들과 그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며 공감하고, 실천현장에서 활기차고 의미있게 도약하며 나아갈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발간사	2
복지관 운영목표	9

1. 복지1팀 활동(면목4동)

주민 모임

- 면목아파트 주민 만남의 장 ‘면목다방’ 14
- 복지관 열린 모임 ‘금요건강체조’ 19
- 복지관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매화향기’ 27
- 복지관 중장년 환경 모임 ‘채송화’ 31
- 샘터공원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오만돌’ 40

주민 모임과 함께한 면목아파트 잔치 ‘가을행복’

- 제 2회 가을행복 잔치 52
- 주민 모임 덕분에 즐거운 우리 동네 56

샘터공원 아동 책 축제 ‘ㅋㅋㅋ북놀이터’

- ㅋㅋㅋ축제 구상하기 64
- 책 축제 미리보기, 샘터공원 아동 독후 활동 67
- 동네 축제를 위해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나서다 72
- 대망의 그 날, ㅋㅋㅋ북놀이터 시작! 79
- 덕분에 이렇게 축제 했어요 87

지역에서 협력하기

- 이음가게와 함께한 청년 모금 94

2. 복지2팀 활동(면목7동)

주민 모임

- 어르신 체조&음악 활동 ‘만남’ 116
- 오거리공원 환경 테마 ‘아동 정기 활동’ 130
- 어르신께 삶의 지혜를 배우는 ‘마을 선생님’ 138
- 오거리공원 행복터 ‘건강돌봄 동네모임’ 145

오거리공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한 ‘환경 놀이 축제’

-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하다 158
- 사전이벤트 버쓰데이 콘테스트 164
- 환경 놀이 스탬프 투어 시작! 168

마을에서 주민과 이뤘간 ‘종이팩 착한순환 캠페인’

- 다시 돌아온 종이팩 캠페인! 175
- 종이팩으로 연결되는 우리 179

지역에서 협력하기

- 면목7동 주민자치회 협력 활동 ‘환경봉사분과’ 190
- ‘이음가게’ 인터뷰 199

3. 복지3팀 활동(면목3·8동)

면동초 아동의 마을활동 '빛나는 10대 Sunny 10'

- 아동이 마을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210
-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215
- 마음을 내어준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222

소파공원 할머니와 함께하는 '추억잔치'

- 이번 소파공원 여름축제는 어르신과 함께! 232
-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한 하루 240
-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침식 245

지역에서 협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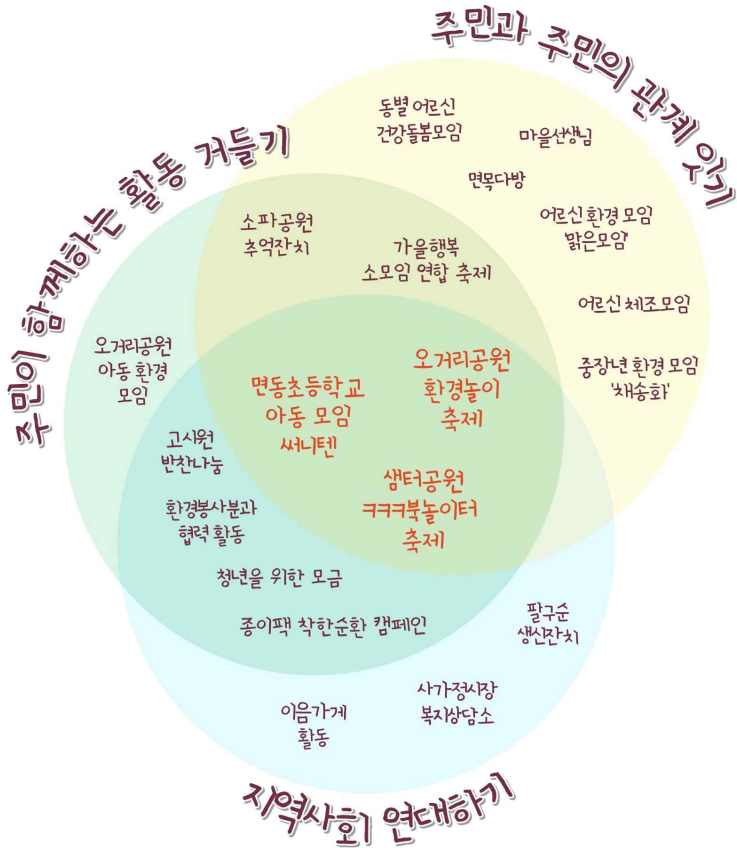
- 사가정 시장과 함께하는 '복지상담소' 250
- 주민센터와 함께한 '고시원반찬나눔' 259
- 이음가게 활동 '사가정에서 까치공원까지' 266
- 신입사회복지사, 마을을 처음 만나다 276
- 마음을 전하는 감사인사 '덕분에 마을이 따뜻합니다' 282

4. 복지4팀 활동(면목4, 5, 7, 3·8동 어르신 특화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팔순 구순 잔치’ …… 290

- 경로식당 어르신 환경 실천 모임 ‘맑은 모임’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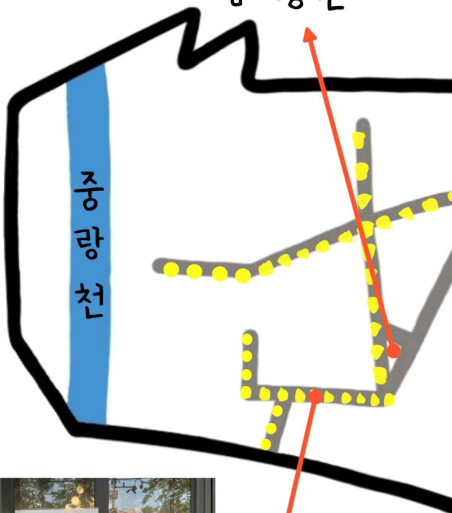
면목의 마을활동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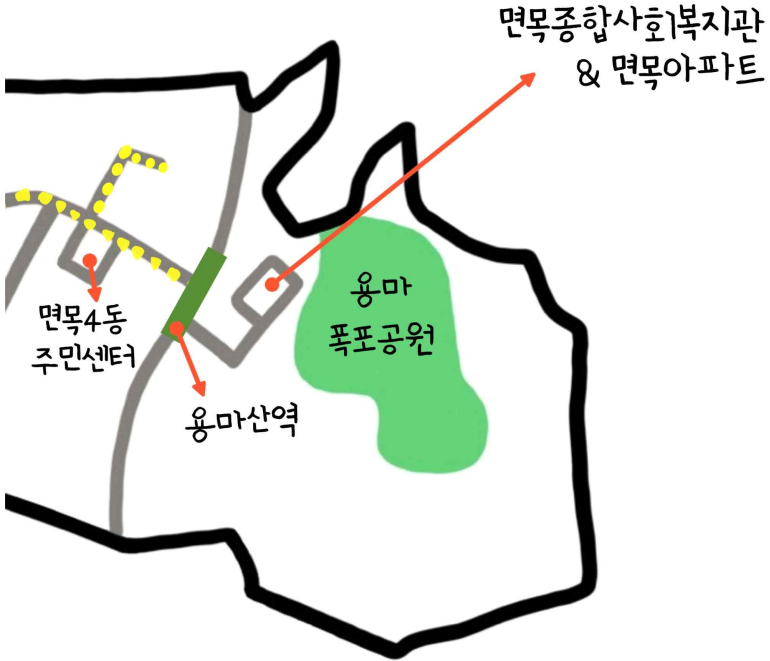
면목4동



삼터공원



이음가게
34개점



주민 모임

면목4동에서는 주민들의 관계를 잇기 위해
차 마시기, 운동, 환경 실천, 일상 대화를 주제로
복지관 안팎에서 주민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5개의 주민 모임 에피소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면목아파트 주민 만남의 장

면목다방

윤지영

함께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눌 간식을 늘 챙겨오시는 마음 넉넉한 전임 어르신
이웃들을 늘 반갑게 맞이하고 챙기는 소통 여왕 박무서 어르신

이리 와 방~ 면목다방!

| 커피 한잔해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면목아파트 놀이터 옆에서 면목다방을 운영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이웃을 소개해 주고, 복지관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전임, 박무서 어르신과 함께 면목다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좋아하는 차를 두 가지 준비하고 의자와 테이블을 준비하면 면목다방이 완성됩니다.



“아저씨, 커피 한잔하고 가요.”

“이리 와서 고구마 잡썬, 내가 어제 시골서 캐온 거야.”

가끔은 고구마, 사탕, 누룽지 등 간식을 챙겨와 주민들과 나누시는 전임 어르신입니다. 여름이면 얼음을 준비해 와 냉커피와 냉녹차도

나눔입니다. 동네 분들을 잘 아시는 박무서님은 서머한 주민분들을 친근하게 불러 모으십니다. 면목다방은 내가 아는 이웃이 운영해서 더 다가가기 쉬운 곳입니다.



|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만나는 주민분들 중에는 30년이 넘게 산 동네에서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바쁘게 일만 했지 동네에 누가 사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복지관은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이젠 심심하고 따분해서 뭐라도 할 게 없나 찾고 있어. 복지관에서는 뭘 해요?”

지나가던 길에 차 한 잔과 이웃을 만나고,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무얼 하고 싶으신지 묻고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지나가던 학생들도 경비 아저씨도 더운 여름 시원한 차 한 잔으로 정을 나눕니다. 얼굴만 알던 이웃과 인사도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니 정이 느껴지고, 차 나누는 자리가 즐겁습니다.



소소하지만 매일 한 번씩 운영되는 면목다방은 새롭게 만나는 주민분들이 건강모임, 경로식당, 주민교실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지 상담도 진행됩니다. 소소하지만 이웃과의 만남이 있는 곳, 주민들의 즐거운 일상을 돕는 곳이 되는 면목다방입니다.

복지관 열린 모임

금요건강체조

이운지

함께한 사람들



4, 12월 반장
정갑선



5월 반장
정미자



6월 반장
전순희



7월 반장
박임자



8월 반장
김혜숙



9월 반장
김애심



10월 반장
조정금



11월 반장
심강구

금요건강체조

| 금요건강체조가 뭐예요?

금요건강체조는 매주 금요일 2시에 경로식당에 모여 건강체조를 하는 모임입니다. 강사님도 없고, 출석부도 없습니다. 춤을 추고 싶으면 그냥 오면 되는 편한 모임입니다. 강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배우냐고요~?

저희에게는 유튜브 선생님이 있습니다.



| 3명이서 시작했던 모임 이제는 20명이 와요.

첫 회기에 오신 분은 3명.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 에 어르신도, 사회복지사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모였으니 그냥 갈 수는 없죠. 흥을 끌어올려 춤을 추었습니다.

“TV(유튜브) 보면서 춤출만하네요. 재밌어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흡족하게 운동하신 어르신들, 다음 주에는 친구와 함께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 아줌마는 맨날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만 보는 사람이야~ 좀 움직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노래교실 하고 싶어 하던 언니인데 대기 중이에요. 건강체조라도 하면 좋으니 같이 왔어요.” 두 번째 회기에는 열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일 홍보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이제는 20명의 어르신들이 춤을 추러 오십니다.



| 선생님은 일 봐요. 우리가 할게요.

건강체조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반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반장이 생겼으니 사회복지사의 품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쉬운 역할 부터 드렸습니다. 30분 일찍 와서 불 켜기, TV 리모컨 조정하기, 방 명록 작성 안내하기, 물 떠 놓기, 뒷정리하기. 쉽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들입니다. 반장 어르신이 대신 해주시니 한결 수월했습니다.

“반장이 오늘 병원이 늦게 끝나서 지각한대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선생님은 일 봐요.”

반장 어르신이 안 계신 날에는 다른 어르신이 반장이 되어주십니다. 주도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에게 감사합니다.



| 간식도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

깜짝 선물로 한 번씩 준비하는 간식타임! 춤을 추고 출출할 때쯤 먹으니 참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자주 갖고 싶지만 예산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늪은 호박 있어서 떡 만들어왔어요.”

“땅콩 한 줌 볶아왔어요.”

“뽕튀기 한 봉지 챙겼지~”

금요건강체조는 예산은 적지만, 넉넉한 인심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신답니다.



| 방학 필요 없어요~ 그냥 쪽 해요.

주민교실이 방학을 했습니다. 우리도 방학을 하자고 말씀드리니 결사반대를 하십니다.

“주민교실도 쉬는데 건강체조도 안 하면 너무 심심해요. 설 사람만 알아서 쉬고,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면 안 되나요?”

어르신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계속해야죠! PC와 TV를 다룰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기기 작동은 대학생이, 모임 운영은 반장 어르신들이~! 복지사가 여름휴가를 다녀와도 모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듯 작지 않은 소모임 금요건강체조. 겨울에도 방학도 없이 1년을 짝 채워 활동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매화향기

윤지영

함께한 사람들



책을 좋아하고 글을 잘 쓰시는 만이 배환덕 어르신
손재주가 남다른 멋쟁이 둘째 최돈남 어르신
유쾌한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여왕 이보선 어르신
누구보다 운동에 진심인 부지런한 김순현 어르신
늘 술선수범하고 인자한 체조반장 손명순 어르신
웃음도 많고 정도 많은 매력만점 강재모 어르신
목소리가 부드럽고 친절한 소녀 감성 김준희 어르신
모임을 잘 섬겨주는 모두의 막내 양점순 어르신

매화향기로 채우는 어르신 건강모임

| 인내, 충성, 맑은 마음

면목4동 아파트 어르신들로 구성된 건강모임의 이름은 ‘매화향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의견을 내고 보태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매화의 꽃말을 빗대어 ‘인내_출석 잘하기’, ‘충성_힘들어도 열심히 운동하기’, ‘맑은 마음_서로 인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 3가지 다짐도 만들어봅니다. 매주 건강 체조, 특강으로 주 1회 모이고 있는 ‘매화향기’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소소한 기쁨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 이웃을 위한 나눔 향기

가을에는 이웃을 위해 민화 컵 받침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사전에 색칠도 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민화 부스는 인기도 많았습니다. 컵 받침이 생소한 이웃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어려워하는 이웃의 색칠도 돕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웃들과 인사하며 함께 만든 컵 받침을 선물로 주니 참 즐겁습니다. 오래 앉아있어 힘들기도 하지만 웃음과 감사의 말이 오고 가는 자리가 행복합니다. ‘매화향기’ 어르신들의 나눔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복지관 증장년 환경 모임

채송화

허준호

함께한 사람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임의 막내이자 환경 선생님! 강인순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먼 길도 한 걸음에 다니는 김희순님
‘안녕하세요 언니~’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박윤희님
‘불러만 주어도 반갑고 좋지요~’ 분위기 담당 심경자님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솜씨 장인 안옥선님
‘모임에 오면 항상 즐거워요!’ 보기만 해도 기쁜 이충임님
‘딱! 모이고 딱 활동하고~! 열심히!’ 약속 지킴이 정량자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현내기(?)지만 마음만은 새롭게 모인 주민들

“우리는 슬로우라이프 모임 회원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지개 모임 주민들이에요. 처음 뵙네요”

봄바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월의 어느 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복지관에서 ‘슬로우라이프’, ‘무지개’ 모임으로 모이던 분들입니다. ‘슬로우라이프’는 10여 년을 환경을 주제로 모였고, ‘무지개’는 지역사회 나눔을 주제로 모였던 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임이 마치 두물머리 강물이 만나 한 흐름이 되듯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을 찾아 하나의 모임으로 만나보면 좋겠다는 사회복지사의 제안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한참을 서로 소개하다가 무지개 모임에서 활동했던 ‘양말목 공예’를 다 같이 해보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웁거니!’ 다 같이 양말목으로 컵 받침을 하나씩 만들어 보며 친해져 갔습니다.



“짜잔~~! 잘 만들었다 우리!!”

| 우리 이름은 ‘채송화!’

모임이 어느 정도 진행될 즈음 양말목 공예도 만들고 기존 슬로우 라이프 모임 때 주로 활동했던 EM 발효액 만들기도 강인순님이 알려주셔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말목 컵 받침을 틀에다가 만들라니 너무 작아요. 컵도 컵인데 좀 큰 냄비 받침 같은 것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은데?”

“틀 없이 손으로 뜨개질하듯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만들어 볼까요?”

-
- 1) 채송화 모임: 피었다가 졌다가 반복하면서도 분꽃처럼 이쁘게 생명을 이어가는 모임(2023.04.03. 정량자님 정의)

“이게 좋겠네! 아 선생님이 잘 알아 오셨네!”

컵 받침보다 큰 냄비 받침에 도전했습니다. 틀로 만들지 않으니 틀이 부족해 못 만드는 불상사도 없고 집에서도 만들어볼 수 있고 무엇보다! 쓸.만.한. 물건을 만들었다는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드는 것은 재미있는데 매번 만들어 우리가 가져가면 쌓이기만 할까봐 걱정인데 어디 좋은 방법 없어요 복지사님?”

“우리 이거 어디 좋은 일에 쓸 곳 좀 찾아볼까요?”

마침 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중 팔순과 구순을 맞은 분들을 위해 분기마다 생신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십시일반 선물해 주신 물품으로 생신 선물을 드리고 있어, 채송화 모임에서도 만든 양말목 냄비 받침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분기마다 적게는 6개 많게는 9개, 10개도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선물 받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후문이 자자...)

| 우리는 놀러 안 가?!

“다른 모임 보니까 다들 놀러 나가시더라구요”

“그러게 날이 이렇게 따뜻한데 우리 일(양말목 만들기)만 하지 말고 좀 나가요. 일복이 많아 그런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웃음)”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저도 나가면 덩달아 좋죠! 나가서 점심도 먹으면 더 좋겠어요! 오랜만에 저도 바깥 밥 좀 먹겠어요!”

“먹을 생각부터 하셔~ 젊어서 그런가 결혼은 했어요?(웃음)”

매번 복지관에서 만나니 몸이 찌뿌둥하다는 의견이 왕왕 있었습니다. 좋은 날 바깥으로 나가자고 논의하여! 어린이대공원, 남양주 등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렵다는 합의로 5월, 용마폭포공원으로 첫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일이 생겨 못 오신 분들이 있어 당황하면서도 즐거웠던 하루)

| 다시 모여 다시!

5월 나들이에 못 왔던 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풀고자 6, 7월 모임 뒤 8월 모임 때 식사 겸 모임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모임을 해보니 어떤지 이야기도 나누고 10월에 있을 복지관 아파트 축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빠질 수 없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맛있는 음식! 비가 참 많이 오던 날임에도 보양식으로 먹을 '해물짬'에 많이 참석했던 날이지요.



| 환경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부심



8월 보양식 모임 후에 더 힘차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발간했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마을책자 발표회 때 오시는 주민들 선물로 나눠주자고 열심히 EM 발효액도 만들고, 10월에는 아파트 ‘가을행복 축제’ 성료 기념, 각자 간식 가져와서 파티도 열었지요.



연말이 다가오는 즈음 모임 평가회를 통해 양말목 공예가 손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어려움이 있어 함께 궁리하여 ‘동백꽃 브로치’를 만들기로 논의도 하였습니다.

“어떤 활동, 모임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라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환경도 생각하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려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지내면 좋지요. 나와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얼마나 즐거워!(웃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송화 모임은 앞으로도 그렇게 즐겁게 만나며 신명나게 활동하려 합니다.



“우리, 이쁘쥬?”

샘터공원 어르신 건강돌봄 동네모임

오_고만_{들고}돌_{보고}

권수민

함께한 사람들



우리 모임 사랑꾼 만언니 **김말순**님
항상 감사한 일이 넘치는 다정한 **오이순**님
좋은 일은 알려주고 함께하는 부지런한 **김순희**님
신나게 잘 놀고 웃음도 많은 **위세희**님
센스있는 말 솜씨로 우리를 웃게 하는 **유춘자**님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안정순**님
똑똑하고 잘생기고 다 하시는 팔방미남 청일점 **황재식**님
발랄하고 넘치는 애교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김정자**님
수줍지만 뭐든 적극적인 막내 **김양순**님

아홉 명이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모임

| 모이기 좋은 공간

면목4동 가운데쯤 있는 샘터공원을 중심으로 오만돌 회원들은 둥글게 둘러 살고 있습니다. 가까우면 1분, 멀면 10분 거리입니다. 최근 모임에 합류한 김말순님은 공원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지관 다녔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어. 여기서 모이면 올 수 있지” 평소에는 남편과 공원을 산책하지만, 이 공간 덕에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 얘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동네 마당발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 모임은 모르는 동네 소식이 없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많이 알리고 나눠야 하는 김순희님 덕분입니다. 덕분에 담당자도, 참여자도 동네가 훤히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의원 엄마 되시는 분이야~ 인사해~”, “경로당에서 나들이를 간다는데, 갈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다음 주에는 오전에 교회에서 행사해요. 교회 안 다녀도 갈 수 있으니까, 갔다가 오후에는 여기(우리 모임) 다 같이

오자구요.” 하루 일정이 똑딱입니다.

동네에서 활동이 적은 이웃을 모임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김양순, 김정자, 유춘자님도 김순희님 덕분에 만난 분들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김양순님이 어색하게 모임 참여를 하고 “그래도 여기 오니까 이런 것도 해보네~” 멋쩍게 웃습니다. 그때 든든한 그녀의 한마디!

“거봐 여기 오니까 좋지?”

| 시대가 바뀌어도 정이 최고야

한 번은 어떤 분이 과거 병치레로 아직까지 몸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들 조언을 건넬 때 오이순님은 “아이고 동생, 괜찮아? 고생 많았네”하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도 감사합니다’처럼 모임의 처음과 끝에 따뜻한 안부와 감사를 물으시는 분도 언제나 오이순님입니다.

위세희님은 ‘인상 깊은 가을’을 주제로 그리움이 담긴 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아, ○○아, ○○아!’.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가 봐요.” 알고 보니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인데, 매몰차게 떠나가 버린 원망스러운 친구라고 합니다. 한참을 속상해하셔서, 모임이 끝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그리워. 그때 우리 모두 힘든 때였는데, 지금은 잘살고 있을지..” 미우나 고우나 정이 있는 우리 모임입니다.

| 이 시대의 신여성

아침엔 요가를 즐기고 낮에는 일을 하며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은 따뜻한 이분은 안정순님입니다. 침착하고 분별력이 있으신 면모에 감수성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를 읽기도, <소풍 같은 인생>을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과 슬픔보다 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덕에 우리 모임에 감성이 더해집니다.



| 오늘은 왜 안 해요?

우리는 공원 내 도서관에서 만납니다. 장소가 장소다 보니 글을 쓰고 말을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게 아주 많은 분도, 당장 할 말이 없는 분도 주제를 드리고 글로 적은 뒤 말하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이 침침해서, 손이 떨려서 잘 못 써도 괜찮습니다. 크게 쓰실 수 있게 이면지를 잔뜩 준비해 갑니다. ‘난 이런 거 안 해봤어, 몰라~’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 이야기인데 못하는 게 어딴 나요? 다 칭찬거리입니다. ‘뭘 이런 걸 하라 그래~’ 그러게요. 9인 9색 어머니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김정자님은 “우리 선생님은 별 걸 다하라 그래~”하며 처음엔 펜 잡기를 망설이시더니 요즘은 다릅니다. 언젠가는 ‘선생님. 만두는 어떻게 그려?’ 하시기에 반원 비스무리 한 것을 알려드렸더니 그 속을 계란과 고구마로 짝짝 채우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을 그리실 줄이야. 옆에 계신 김순희님은 무려 ‘해피 사랑 만두’를 빚으셨습니다.



또 언젠가는 시간이 부족해 “(발표는 안 하고)그림까지만 그럴게요” 했더니, “오늘은 왜 안 읽어요? 나 읽고 싶은데. 읽고 싶은 사람만 읽자. 나부터 읽어볼게요~” 합니다. 줄지에 다른 분들도 줄줄이 발표하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저마다 쓴 것이 달라 재밌습니다. 내가 쓴 내 작품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 기뻐합니다.

| 슬픔을 묻어 놓고

처음에 황재식님은 우리 모임에 안 오겠다 하셨습니다. 슬픈 일을 겪고 난 후 혼자 있고 싶어 하셨지만, 당시 아버님을 걱정하는 한 선생님의 살핌으로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뭐든 잘하고 빨리 하셨습니다. 특히 글만 쓰면 안정순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과묵하셨지만 자신의 것을 먼저 마치고 옆 사람에게 어려운 글씨 쓰는 법, 꽃그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외로운 나에게>는 아버님이 쓰신 글의 제목입니다. “올해도 많이 웃었지만, 내년에는 더 슬픔을 털어보자” 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숙연해지려는 순간, 김정자님이 조용히 토닥 토닥 하십니다. 안정순님은 고민하는 듯하더니 대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는요 어디 가면 아저씨 사랑을 해요. 여기 여자들만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요.” 그러고는 같이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유

춘자님은 조금 웃으시더니 한 마디 덧붙입니다. “나도 우리 아들한테
아저씨 얘기를 해요. ‘그 아저씨는 우리를 여자로 안 보나봐~’ 황재
식님은 잠시 꼼빱꼼빱 하시더니 “여자로 보니까 나오지요~”하며 그
제야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주민 축제

이어지는 장에서는 주민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한
2개의 주민축제 현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면목4동에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목아파트와 샘터공원에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주민 모임과 함께한 면목아파트 잔치

가을행복

윤지영

함께한 사람들



금요건강체조_공순남 박임자 심강구 유병석 전순희 정미자
맑은 모임_김기복 김선임 안향애
매화향기_강재모 손명순 김준희 김순현 배환덕 양점순 이보선 최돈남
면목다방_박무서 전임
문학하는할매_김복순 김혜숙 송원호 윤등자
채송화_강인순 김희순 박윤희 심경자 안옥선 이충임 정랑자
행복한텃밭_김경례 김애심 박춘자 유정례 이영례 정갑선 조정금 차점순
면목데이케어센터 어르신
노래자랑 심사_최순자
접수/안내_김영자 안현진

제 2회 가을행복 잔치

| 소모임 주민대표 회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주민 대표분들이 많이 모이셨네요.”

이름과 모임 소개로 인사를 나눕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활동하던 주민분들이시기에 서로 잘 알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가을행복 잔치’입니다. 주민들이 이름을 짓고 홍보하고 부스를 준비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마을 잔치입니다. 올해는 2개의 소모임이 더 참여하여 총 7개의 소모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소모임에서는 사전에 잔치 때 각 소모임에서 나올 것들을 고민하고 오셨습니다.

행복한텃밭_부침개, 문학하는할매_등굴레차/유자차, 금요건강체조_어묵/물떡꼬치, 면목다방_절편, 맑은 모임_커피박 열쇠고리 만들기, 매화향기_민화 컵받침 만들기, 채송화_EM발효액 나눔.



몇몇 주민분들이 작년의 경험을 살려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시고, 새로 참여한 주민분들은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작년에 먹거리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어요.”

“떡을 세 번, 네 번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가 없더라고.”

“티켓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어요.”

무료로 떡과 부침개 등을 나누다 보니 줄이 길어지는 어려움과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티켓을 만들기로 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마을 잔치인 만큼 참여한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나눠 갖길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쌀을 조금씩 가져와서 작년처럼 떡을 하죠.”

“부침개랑 어묵꼬치에 들어갈 채소도 조금씩 가져올까요?”

“파, 양파도 한두 개씩 가져오면 구입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필요한 물품을 정하여 주민들의 나눔도 함께 홍보합니다.



| 주민들의 나눔

조금씩 담아오신 쌀과 양파, 고추, 무 등이 모아졌습니다. 쌀은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홍보를 멈추었고, 채소는 부침개랑 어묵꼬치에 사이좋게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니다. 복지관 텃밭에서 키운 작물들과 집에 있는 채소들도 조금씩 모입니다.



사전에 모여 어묵도 미리 쫓아두고, 가지고 온 멸치, 다시다를 가득 넣어 육수도 만들어 둡니다. 모인 쌀이 무겁지만, 주민분들과 함께 싣고 떡집에 갑니다. 부침개 반죽도 정성껏 해둡니다. 민화 받침대도 미리 만들어보고, 커피박 열쇠고리를 위해 지역 카페에서 모은 커피 찌꺼기를 말려 커피 지점토도 미리 만들어둡니다. 부스를 운영하시는 주민분들이 곳곳에서 솜씨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민 모임 덕분에, 즐거운 우리 동네

| 힘들지만 행복한 나눔

제2회 소소한 마을 잔치 ‘가을행복’

“딩동댕동~~~~~♪”

실로폰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노래 소리로 잔치가 시작됩니다. 작년 사회를 본 MC복덕 최순자님이 이번에는 노래자랑 심사를 맡았습니다. 주민분들의 노래자랑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는 면목데이케어 어르신들의 커피비누 나눔까지 총 8개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자, 이 티켓이 있어야 부침개를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다 도장 받으면 돼요.”

가장 고심했던 티켓 배분도 김영자, 안현진님이 운영합니다. 곳곳에서 ‘빨리빨리’라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안전을 위해 차례차례 설명

하며 티켓을 나눕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귀엽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지점토인데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3개의 소모임과 면목데이케어센터에서 준비한 만들기 체험 부스까지 4개가 진행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커피 비누를 데이케어 어르신들이 설명하며 나누어줍니다. 또 다른 환경 부스인 맑은 모임에서는 이웃들이 원하는 모양의 커피박 열쇠고리를 정성껏 함께 만들어줍니다.





“어, 나 EM 알아요. 이걸로 비누 만들잖아요.”

“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EM 발효액이에요.”

EM 만능 세제 만들기는 긴 설명으로 고단하지만 EM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이 오면 신이 나서 설명하는 채송화 모임입니다.

“어머나, 어쩜 이리 예쁘게 색칠했어요? 나 좀 도와줄래요?”

“요건 내가 색칠해 본 건데 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매화향기 모임이 운영하는 민화 컵 받침도 인기입니다. 만들기가 오랜만인 주민들에겐 어떤 색으로 칠해야 할지부터 고민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 시간입니다.



“부침개는 꼭 먹어야 해.”

“솜씨도 좋아. 어쩜 이리 맛나게 부친데”

먹거리 부스는 티켓을 든 주민들의 줄이 줄지를 않습니다. 금요건 강체조 모임에서는 진한 옥수에 끓인 어묵과 물떡 두 개를 다 나누어줍니다. 행복한텃밭 모임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잔치의 인기 최고는 부침개입니다. 프라이팬 불도 뜨겁고 햇볕도 뜨겁지만 기다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실 틈이 없습니다.



“가래떡 오랜만에 먹네.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주민들이 모은 쌀로 만든 가래떡은 면목다방 모임에서 두세 개씩 넉넉히 나눕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들어 보내준 동굴레차예요”

“어머, 동굴레차 오랜만에 먹어보네.”

직접 만든 동굴레차와 유자차를 나누는 문학하는할매 모임의 손도 바쁩니다. 떡과 부침개도 좋지만 추운 날 따뜻한 차는 빠질 수 없습니다.

| 내년을 위한 평가회

고단하고 즐거웠던 가을행복 잔치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로 쓰레기 정리로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주민들입니다. 정리를 마친 후 남겨둔 부침개와 어묵을 나누며 평가회를 가져봅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가스버너를 더 준비해야겠어요.”

“엄청 바빴고 힘들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떡을 나누니 좋더라고요. 건강히 또 잔치하면 좋겠어요.”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잘 진행되었어요. 만들기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꾸미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EM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쉽더라고요. 다음엔 EM을 더 알려야겠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 또 만나서 하면 좋겠어요.”

300여 명이 넘는 주민분들이 참여한 마을 잔치를 마치며 힘들지만, 즐거웠던 소감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는 의견도 서슴없이 나눕니다. 무사히 마친 것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평가를 마치며 잔치를 준비하고 운영한 주민들에게 마침 지역의 청소년들이 만들어 보내온 쿠키와 카드를 전달합니다.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카드를 읽으니 고단했던 피로도 싹 풀립니다. 주민들의 수고로 펼쳐진 마을 잔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민들 사이에 즐거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이웃의 정과 나눔이 있는 가을행복 마을 잔치가 우리 마을에 오래오래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샘터공원 아동 책 축제

ㅋㅋㅋ북놀이터

권수민 이윤지 허준호

함께한 사람들



면목4동 이음가게 34개점 사장님

우리부동산, 맘찬, 복음전파사, 슬기로운카페, 신세계할인마트, 용
용떡볶이, 크린토피아, 한우리문구, 철민이네과일가게, 현대부동산,
위시아이꽃풍선, 피자스쿨용마산역점, CU중랑그랑데점, 직화파불
고기, 탕츠포터리, माम김밥, माम빨래방, 뚜레쥬르용마산역점, 면
목떡집, 하나슈퍼, 꽃들의이야기, 동호건재. YSL문학창작공간, 토
탈광고디자인메이아이, 경남부동산, 소소커피데일리, 금천이발소,
선복칼국수, 아리따미용실, 뽕다방, 소미경한복전문점, 커피인코너,
카페홀작, 해늘당

자율방법대 강성길·김창숙 대장님, 이보경 대원님

샘터공원 아동 엄혜란, 김현주, 조슈아, 조수연, 황윤우, 윤우빈

샘터공원 작은도서관

ㅋㅋㅋ축제 구상하기

| 사랑하고 싶은 동네 ‘면목 4동’

시작은 ‘우리 동네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동네에서 살면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야,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 살만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동네를 만들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보태 ‘내가 한몫했지!’ 생각하시길 바라며 축제를 구상했습니다.

| 축제 진행하기 딱 좋은 공원

면목4동 팀의 주무대는 샘터공원과 이음가게²⁾ 34개 점이 있는 면목4동의 구석구석입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샘터공원 1층에는 작은도서관, 2층에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축제하는데 두 곳을 빼놓을 수 없죠!

2)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굴한 면목 4동, 7동, 3·8동 내 상점으로 2024년 1월 기준 71개점이 있음. 복지관과 주민을 잇는 곳으로 어려운 주민을 기관에 소개하거나 복지 정보 소개말, 기관의 지역 행사에 협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층 자율방범대는 축제 때마다 크고 작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아이들을 위해 수박을 썰어 화채를 만들어 주셨고, 어느 가을날에는 간식을 잔뜩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1층 작은도서관에는 작년부터 순회 사서님이 배치되었습니다. 작년 사서님과 책으로 어떻게 주민을 만날지 얘기한 경험이 있어, 올해 새로 오신 사서님에게는 먼저 방문하여, 책으로 주민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서님은 환영하시며 구체적인 축제의 일정을 묻고, 자신이 경험한 책 축제와 다양한 아이디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1, 2층과 추억이 있으니 축제 시작도 전에 벌써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 ㅋㅋㅋ신나는 상상

놀이터와 책?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책 속 이야기를 활용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ㅋㅋㅋ’ 웃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ㅋㅋㅋ북(Book)놀이터’로 축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의 축제가 되면 좋을까? 이런 저런 상상을 하며 면목4동 팀도 ㅋㅋㅋ 웃습니다. “아이들은 똥 소리를 들으면 ㅋㅋㅋ 웃으니까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책을 읽고 슬라임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놀이터가 그날만큼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책이 깔려 있고...”, “책으로 탑을 쌓으면 어

때요?”, “탑 쌓기 말고 더 크게 성을 짓는 건 어때요? 책 터널 아래로 지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놀이터 공간이 어떻게 변할까요?



축제는 7월! 그 전까지 축제 준비와 진행을 함께 할 아이들과 이음가게 사장님들을 모으고, 축제가 진행되는 샘터공원에서는 주 1회 책 놀이 활동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월	내용
2월	- 축제 구상
3월	- 아동 독후 활동(3~7월)
4월~5월	- 아동 축제 기획단 모집 - 축제 참여 이음가게 모집 및 역할 논의
6월	- 이음가게와 함께하는 축제 사전이벤트 - 아동 축제 기획단 활동
7월	- ㅋㅋㅋ북놀이터 축제

책 축제 미리보기, 샘터공원 아동 독후 활동

| 오늘은 뭐 해요?

‘ㅋㅋㅋ북놀이터’ 축제의 주제는 책! 매주 목요일 아이들을 만나는 정기 활동에서도 책을 주제로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림책은 샘터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합니다. “얘들아 이 그림책 저기 도서관에서 빌렸어, 더 보고 싶으면 저기 가서 봐도 돼.”

글보다는 그림이 좋은 어린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유익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어울리는 독후 활동을 준비합니다. 색칠하고, 오리고, 붙이고~ 오감을 사용한 독후 활동입니다.



“책 놀이 싫어요~ 다른 거 할래요.”라고 독후 활동을 거부했던 아이들도 한 번 해보니 재미있었는지 다음 주에 또 놀러 옵니다.



“책을 읽는 건 재미없는데, 읽고 미술 활동 하는 건 재밌어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 놀이 활동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니 이번 주제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바쁜 아이들, 아동기획단 가능할까?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할 친구들을 8명을 모집하고 싶었습니다. 독후 활동에 참여한 친구 중 축제 준비를 같이할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책 축제 같이하고 싶은데, 곧 학원 가야 해요. 다음 주에는 단어 시험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축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한 달간 축제 준비를 할 시간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샘터공원은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방과 후 끝나고 학원 셔틀 기다리면서 잠깐 10분~20분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샘터공원에서 아이들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동기획단 모집이 처음 계획과는 달라지겠다는 생각에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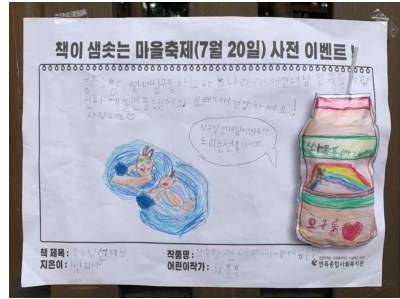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샘터공원에는 학원과 방과 후 일정으로 바쁜 아이들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 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함께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잠시 참여하더라도 의견을 내고 반영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지역 어른들(이음가게)과 만날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간 정기 활동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온 한 친구가 축제 준비부터 진행, 아이들 모집까지 든든하게 맡아주었고, 그 친구 덕에 축제 준비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다른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민하며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 사전이벤트

축제 사전이벤트는 책을 읽고 소감을 그림, 글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제출하는 이벤트입니다. 샘터공원에서 같이 읽은 책도 좋고, 집에서 따로 읽은 책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제출한 작품은 축제 현장에 크게 전시하기로 합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이 하는 재미난 일에 함께하고 싶은데, 일정이 바빠거나 나이가 어려 할 수 있는 게 적은 친구도 사전이벤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작품이 샘터공원에 걸린다면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경험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만 사전이벤트를 제출하러 복지관에 오기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동 곳곳에 있는 이음가게에 요청드려보면 어때요?”

“이음가게 중 아이들이 잘 알고, 자주 가는 곳도 있어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중곡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음가게에 이벤트 작품 접수처가 되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몇 곳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덕분에 30개의 멋진 독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네 축제를 위해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나서다

| 지역의 것으로, 지역 주민이 이를 수 있도록

‘ㅋㅋㅋ북놀이터’ 축제가 진행될 때 주민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한몫했지!’하고 느끼시길 바랐습니다.

면목4동에서 이음가게로 참여하고 있는 34곳의 사장님들을 모두 만나 축제를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축제의 계획, 아이들의 참여 방식, 축제 참여 인원 등 주제를 꺼내며 사장님들에게 묻고 듣고 의논하고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축제의 의도를 설명드리며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함께 관심과 사랑 더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축제 홍보지와 축제에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인 ‘이음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면목4동 아동기획단, 이음가게와 함께하는

2023 샘터공원 책이 샘솟는 마을축제

일시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장소 면목 4동 샘터공원 & 작은도서관
참여 대상 아동 청소년 100명

2시~4시	3시~4시	4시~5시	5시~6시
함께 만드는 책상식, 책도요놀이	샘터야 책 읽어줘 with 배우경 선생님	책놀이 버스 (스라니 글자 읽 도어간 이벤트 등)	사전 이벤트 시합, 수박 화제 나눔

신청 및 문의 02-436-0500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 면목4동 책이 샘솟는 마을 축제를 함께 빛내주실 *상점* 을 찾습니다

책, 간식, 야쿠르트, 수박, 사이다, 칵테일 후르츠, 심 색종이, 풍선, 만국기, 부스캐릭터 도안, 얼음(곰돌이), 의자/테이블 대여 등

부스운영, 재능기부, 사전 이벤트 홍보/접수 등

이음 산형서

상호명(성명)	이음가게 명함	여 / 부
이음 호칭	로직	연락처
이음 형식	물품 이름 / 손길 이름 (이름 내함에 O 해주셔야)	
이음 내명		

샘터공원에서 오랜만에 아이들 축제를 연다고 하니 모두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사장님들 관심 속에서 어떤 축제인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고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응원하고 보태어 진행하는 책 축제예요. 저희도 회의해 보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샘터공원에서 아이들과 책을 주제로 활동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활동이라고 하니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셨습니다. 샘터공원에서 책과 관련한 축제라고 하니 아이들 교육과도 관련이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반겨주셨습니다. 축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좋은 의견도 전해주셨답니다.

한 사장님은 격려를 보태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그거 다 준비하려면 허리 휘어! 아니 지천으로 널린 게 의자고 테이블인데 그걸 어떻게 다 가져와. 아휴 부탁해 부탁!” 저희의 마음이 통한 것 같이 힘이 났습니다. 지역의 축제이니 지역의 것으로, 또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 있도록³⁾ 돕는 것! 그렇게 뜻있게 축제를 준비하자고 독려하며, 이음가게 사장님들에게 제안하고 준비를 거들 수 있었습니다.

| 아이들 간식은 우리에게 맡겨요! 간식 특공대 사장님들

아이들 축제인데 무엇이 필요하냐는 사장님들 이야기에 필요할 것 같은 예상되는 도움이 적힌 설명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외부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지역 안에서 준비하려니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아이들 간식에 관심 두고 함께 해주신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오려나? 오면 어떻게 그냥 보내요. 뭐라도 먹여서 보내든 들려서 보내든 해야 아이들이 좋아하지. 간식 좀 보태줄까요?”

3) 복지요결(사회복지 정보원 2023.2.1.) 사회사업의 개념-지역사회 정의



그렇게 이음가게 13곳에서 아이들 간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음가게 1호점 우리 부동산, 11호점 위시아이 꽃풍선, 25호점 경남 부동산 사장님이 아이들 맛있는 것 먹이면 좋겠다며 간식비를 보태주셨습니다.

5호점 신세계할인마트 사장님은 달콤한 사탕을 전해주셨고, 6호점 용용떡볶이 사장님은 사전이벤트(독후 활동)를 잘한 친구에게 주면 좋겠다며 떡볶이 쿠폰을 주셨습니다.

16호점 마미김밥 사장님은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활용한 책놀이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르트를 가득 사주셨고, 19호점 면목떡집 사장님은 축제에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절편을 보태주셨습니다.

10호점 현대 부동산, 20호점 하나슈퍼, 29호점 아리따 미용실 사장님은 여름에 진행되는 축제를 염려하시며 물을 전해주셨습니다. 현대부동산 사장님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직접 물을 얼려주셨습니다. 34호점 해늘당 사장님은 달달한 아이스티를 아주 큰 통에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9호점 철민이네 과일가게 사장님은 더운 여름에 딱 어울리는 달콤하고 시원한 큼지막한 수박을 내어주셨고, 12호점 피자스쿨 용마산 역점 사장님은 그간 아이들 위해 모았다며 애써 모으신 저금통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로 한 후, 준비 물품을 받으러 갈 때는 샘터공원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하고 인사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고 장난기 넘치던 아이들이 사장님들을 뵈면 수줍고 의젓해집니다.

| 우리도 함께 도와주세요!

축제를 준비하며 헤아린 부스 개수가 8개 부스가 넘었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책 탑을 쌓으며 놀 수 있는 곳, 책 내용에 나오는 개구리를 색종이로 접어 멀리 뛰기 시합하는 부스, 책 내용과 연관된 슬라이임을 만들거나 방귀 노래에 맞춰 방귀 방석을 누르는 등 즐거운 책 축제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축제한다고 하면 책상도 좀 많아야 하고 의자도 좀 있어야 할 텐데 필요한 것 없어요? 어떻게 좀 도와줄까요? 사람 손길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축제 부스에 필요한 물품은 이음가게 14곳과 자율방범대에서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2호점 맘찬에서는 축제 당일 간식 담아 먹을 용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철민이네 과일가게에서 주신 수박과 면목떡집에서 주신 떡은 맘찬에서 주신 용기에 담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더운 날인 만큼 간식을 빠르게 배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7호점 크린토피아에서 샘터공원 2층 공간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제 당일에 수박을 먹기 좋게 잘라 주시기도 했습니다.

4호점 슬기로운 카페, 26호점 소소데일리 커피, 30호점 백다방에

서는 열음을 주셨습니다. 그 덕에 간식도 시원하게 보관하고, 더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8호점 한우리문구, 27호점 금천이발소에서는 축제 장식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문구류를 지원해 주셨고, 3호점 복음전파사에서는 사전이벤트에 필요한 종이를, 21호점 꽃들의이야기 사장님은 사전이벤트 작품이 돋보일 수 있게 예쁜 리본 끈을 전해주셨습니다.

13호점 CU중랑그랑데점에서는 아동 준비 위원이 사용할 수 있게 테이블과 의자를 대여해주셨습니다.

17호점 마마빨래방에서는 부스에서 아이들이 슬라임을 만들 수 있게 재료를 보태주셨고, 31호점 소미경 한복 전문점에서는 직접 ‘한복’을 주제로 그림책과 관련 활동을 준비하여 부스를 운영해 주셨습니다.

샘터공원을 꾸미려면 사전이벤트 작품도 달고, 만국기도 달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도 장식할 수 있도록 22호점 동호건재 사장님이 사다리를 빌려주셨습니다.

24호점 토탈광고메이아이 사장님은 함께 한 이음가게 명단을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담아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축제 당일에도 축제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너희들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신분들이야~’하고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4개 이음가게가 모두 샘터공원 축제를 위해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망의 그 날, ㅋㅋㅋ복놀이터 시작!

| 이음가게에서 주신 것을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 ㅋㅋㅋ복놀이터가 열리는 날입니다. 축제 전날부터 사전이벤트로 아이들이 제출한 독후 활동지를 샘터공원에 전시해두었습니다. 활동지에는 꽃들의이야기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예쁜 리본을 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샘터공원에 미리 와서 축제를 준비합니다. CU에서 빌려온 파라솔을 펼치며 자랑해 봅니다. “얘들아, 너희 덩지 말라고 빌려주신 거야~”, “아! 저 CU 삼촌 알아요~” 평소 아이들을 반겨주시는 CU 사장님은 축제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인기 만점입니다.

큰 TV도 설치했습니다. 그간 도와주신 이음가게 사장님들과 아이들 모습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축제에 오시는 분들에게 도와주신 분들 덕에 이 축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축제를 준비하다 말고 TV 앞에서 ‘나는 언제 나오나..’ 한참을 구경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신나게 자랑도 합니다. 고민 끝에 가져온 TV, 가져오길 잘했죠?



샘터공원 한 편에는 돛자리를 깔고, 마미김밥 사장님이 모아주신 그림책을 펼쳐두었습니다.



아이들이 금세 와서 책으로 높이 높이 탑을 쌓습니다. 자기 키보다도 높게 쌓는 아이도 있고, 와르르 무너져도 웃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책을 펼쳐 읽어보는 아이도 있었지만, 역시나 어머님들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책은 마미김밥 사장님이 모아주셨어요. 축제 끝나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읽을만한 책들이 많아요~” 축제가 끝나고 그림책을 모두 나눠 가져가신 덕에 의도치 않게 저희 짐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책 탐을 쫓다가 옆으로 와 알록달록 물감으로 손도장을 찍습니다. 손도장 옆에는 토탈광고메이아이에서 만들어주신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도와주신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적혀 있는 지도입니다.

“얘들아 이거 봐. 이 가게 알지? 여기 있는 책들 이 가게에서 주신 거야~” 재밋게 손도장 찍는 아이들 옆에서 ‘우리 동네 어른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즐겁게 노는 걸 좋아하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귀찮게 말을 걸어 봅니다.

| 아이와 어른이 함께 진행하는 책놀이 부스

센터공원에는 8개 책놀이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어른 1명, 아이 1명 짝을 이루어 부스를 운영합니다. 아이들은 게임 시범을 직접 보이기도 하고,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몇 살 아래 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 사서님은 직접 그림책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내용을 소개하는 부스를, 소미경 한복 전문점 사장님은 한복 그림책 부스를 운영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스! 34개 이음가게가 담긴 파일을 화려하게 넘겨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는 “저 여기 알아요.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아요!” 하며 반가워했고, 어떤 어머니는 “가게에 갔는데 이음가게 액자가 있더라 구요. 이게 뭐예요~? 하고 사장님께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나 이음가게가 많네요?” 하며 이음가게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 축제 도와주신

거래. 다음에 가면 감사하다고 인사드려~"하시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 고민되었지만, 아이들과 어머님들 덕분에 설명하길 잘했다!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일을 다 본 아이들은 이음가게 사장님들께 "이런 축제 재밌어요. 또 해주세요!", "저희 잘 클게요." 하며 화답했습니다



간식 시간~ 철민이네과일가게에서 주신 수박, 면목떡집에서 주신 떡, 해늘당에서 주신 아이스티를 시원하게 나눠마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에게 빠르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2층에서 애써주신 자율방범대 덕분입니다.



사전이벤트 시상도 했습니다. 많은 작품 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서 작품을 제출해 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은 용용떡볶이에서 주신 떡볶이 상품권입니다! 상을 받은 몇몇 친구들은 샘터공원 정기 활동 때마다 와서 책 놀이를 할 때마다 본인도 재밌게 하고, 옆의 친구들도 정성껏 도와준 친구들이라 흐뭇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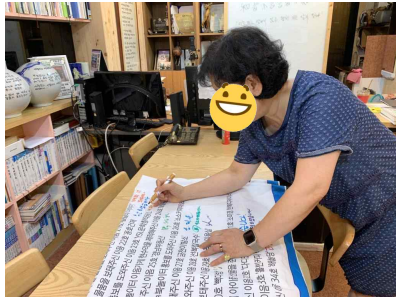
덕분에 이렇게 축제 했어요!

| 서로에게 전하는 감사

끝나지 않는 감사 인사! 축제가 끝나고 축제를 함께 도와준 사회복지 실습생들이 아이들과 평가회 때 직접 쓴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소중한지 여기던지, 집에 가서 전시한 사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음가게 사장님들께도 축제 사진과 함께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와 함께 현수막을 들고 찾아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싸인해주세요!” 이렇게 추억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 면목4동!’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내가 한몫했지~’하시는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해볼 것이 없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리 끝에! 축제 준비부터 진행까지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들 축제로 진행했으니 책도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쉽고, 사장님들도 누군가에게 보여 주시며 자랑하기 편하도록 그림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이니 준비부터 진행까지 장면마다 사진도 추려내고 이음가게를 떠오르게 하는 그림책 속 주인공! ‘이음’도 실제 한 아동을 섭외하여 ‘ㅋㅋㅋ복놀이터’ 내용을 이음이의 일기 형식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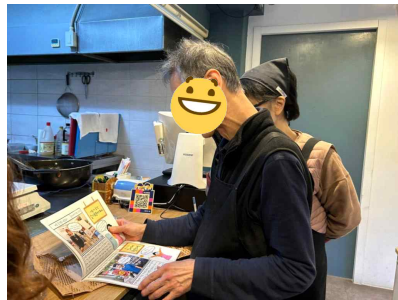
만들어진 면목4동 ‘ㅋㅋㅋ북놀이터’ 그림책을 면목4동 이음가게 34곳 사장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잖아? 그림책으로 만드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오며 가며 편하게 읽기 아주 좋아요! 잘 알려볼게요!”

“아니... 이렇게 수고롭게 책까지... 정말 감사해요~!”

축제를 만들어주신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그림책 속 장면을 보며, 뜨거웠던 여름의 감동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재밌게 웃으시며 대. 만. 족! 하신 그림책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면목 4동 이음가게로 놀러 가시면 볼 수 있답니다~!

| ㅋㅋㅋ복놀이터 축제, 이음가게 방문 후일담

무더운 여름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덕담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멋진 축제를 준비하기까지 오갔던 안부와 살핌, 조언들! 사회 복지사 혼자 알고 있기에 아쉬워 답아봅니다.

(계절 안부) 여름철 축제를 연다고 하니 계절과 관련한 안부와 덕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얼굴이 다 익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대요?”, “샘터공원이 그늘이 많은 편이 아닌데 괜찮아요? 파라솔이라도 어디서 빌려다가 펴놓고 해야지 더워요 더워!”

(주제 안부) 책을 주제로 진행하는 축제라고 하니 주제부터가 아이들이 오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축제라고 오려면 우선 재미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좀 재밌거리가 좀 있어요? 막 책만 읽고 그러면 어려울 텐데...”

책도 읽고 독후 경시대회도 열려고 했던 축제 의도를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형식으로 바꾸는데 큰 의견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안부) 축제 의도를 이음가게 사장님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들었던 가장 많은 안부였습니다.

“축제를 이렇게 일일이 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또 애들하고 준비하고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일해, 아니 이 더운 여름날 걸어왔어요? 아휴 더위 먹겠어요. 이거 좀 먹어요(박카스 하나 주시며).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축제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면서도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좋다! 사장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더 멋지게 축제 준비해 볼까요?!” 더 빠지랑 빠지랑 사장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가득하셨던 사장님들이 땀 흘리며 찾아오는 사회복지사 보시니 점점 버선발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간식도 다 사주시겠다, 필요한 물품도 이야기해 달라, 아주 든든한! 사회복지사 뒷배 주민과 사장님들이 생겨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협력하기

이어지는 장에서는 지역 청년을 돕기 위해
면목4동의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협력하신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음가게와 함께한

청년 모금

허준호

함께한 사람들

땡그랑! 니룰수록 커지는 사랑의 크기 저소득 청년을 위한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 모금함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점 사장님이 제안해주시고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십시일반 모금함입니다.
모금된 금액은 저소득 청년들의 생활비, 취업활동지원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모금함을 제안해 주신! 카페홀작 사장님

십시일반 거점 청년 사장님이 운영하는!

CU중랑그랑데점, 해늘당 카페, 슬기로운 카페, 다디단 카페

커피 소소데일리, 뚜레쥬르 용마산역점, 카페 인 코너

청년에 관심 많은! 소미경 한복 전문점

이음가게 사장님이 몽쳤다!

| 면목4동 청년에게 관심 있는 사장님의 제안 접수!

여느 날처럼 ‘살맛 나는 면목4동’에 대해 궁리하던 중에 ‘청년을 위한 모금함’을 만들 수 있는지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용마폭포공원 입구 부근 ‘작은카페 홀작’입니다. 사장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그런 제안을 생각해 주셨는지 자초지종을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복지관에서 저소득 청년의 특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했던 경험이 계속 맴돌았어요. 생각해 보니 모금이란 것이 멀리 있지 않구나 싶고, 거창한 모금이 아니더라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모금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그러다가 모금함 하나 만들어서 두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렸어요”_홀작 사장님

이어서 모금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사장님과 ‘전략회의’가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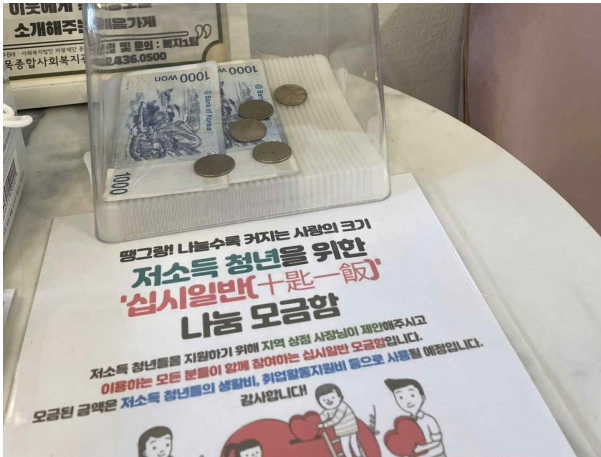
“엄청 많은 금액을 모금한다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모금이 잘 돼서 더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어쩌면 면목4동이 또 상점들이 청년을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에게 관심이 있는 상점들이 더 있다면 복지관에서 소개해서 모금함에 동참해도 좋고요!”_홀작 사장님

| 복지 1팀, 면목4동에서 ‘청년’을 꿈꾸다

제안해 주신 ‘저소득 청년을 위한 모금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복지 1팀 팀원이 살을 보태고 기관의 자문을 더하여 모금함 운영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카페 사장님을 찾아 뵙고 계획을 검토 받았습니다.

“주변에 참여할 청년 사장님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지요.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또 으샤으샤도 할 수 있구요!”_홀작 사장님

총 10개소 청년 모금함 운영 상점을 섭외하기로 목표하고 면목4동 기존 이음가게에서 ‘사장님이 청년인 곳’, ‘청년에 관심이 있다고 표현했던 곳’을 중심으로 예상 참여 상점을 추렸습니다. 그럼에도 목표 10곳 대비 3~4곳 정도가 딱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녀봐요. 다니다 보면 또 보일 거예요. 관심 있는 사장님들이!”_복지1팀

말이 씨가 되듯, 면목4동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상점 두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이음가게 31호점, '소미경 한복 전문점'

'소미경 한복 전문점'은 이음가게 26호 '카페, 소소데일리커피'에 비치된 기관 소식지를 보고 이음가게로 참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복집은 면목4동에 오래 살았던 주민이라면 곧잘 떠올린다는 '백조 피아노 자리'에 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구에서 지역을 위해 재능을 나눠 보신 경험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청년 모금함 이야기를 살짝 드리니 이음가게도, 모금함도 함께 해보고 싶다고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들 모임에 재능기부 강사로도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면목4동에도 관심이 가고 청년, 지역주민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지역이 잘되고 골목골목이 잘 되면 결국 모두가 잘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건 같이 이루고 힘쓰는 만큼이라고 생각해요”_소미경 사장님

| 이음가게 32호점, '카페, 다디단'

“여기도 카페가 있네요?!” 면목4동 성당 부근을 거닐다가 ‘카페, 다디단’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소개해주셨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계신 것이 새로워 그 뒤로 몇 차례 방문 드리다가 슬쩍 이음가게와 ‘청년 모금함’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큰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오는 분들에게 필요하면 복지관 상담 소개하고 모금함 함께 하며 청년들 생각하는 것은 해볼 수 있겠어요”_카페 다디단 사장님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게’, ‘청년 사장님’ 키워드를 생각하며 또 한 곳 함께 마음을 더해갈 터를 찾았습니다.

| 햇살이 찾아드는 노란 대문의 카페 ‘해늘당’

중곡초 부근 큰길을 내려오다 보면 햇살을 받는 노란 대문의 카페 ‘해늘당’이 있습니다. 면목복지관을 통해 아이, 어르신, 주민들을 위한 음료를 기부해 주시는 후원 상점입니다. 4월 어느 날, 후원 내역을 정산하고자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모금함’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모금이 새로워요. 면목4동에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꼭 어떤 누구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관심들이 늘어나면 두루 좋은 것이니까요. 모금함에 함께 참여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들게 되나요?”_해늘당 사장님

이미 주시는 마음도 적지 않은데 면목4동 새로운 키워드 ‘청년’에 함께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잘 만들어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 어벤저스처럼 모인 9곳의 '청년 모금함' 사장님들

기존 이음가게 사장님들 중에도 청년에게 관심이 있거나 '청년 사장님'인 분들에게 모금함을 제안했습니다. 사장님마다 찾아뵙고 명분과 과정, 사장님들이 미래에 바라는 점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음 4호점 슬기로운 카페 사장님_“모금함을 두면 많이 모이면 좋지요. 주세요. 청년들 응원합니다!”

이음 13호점 CU중랑그랑데점 사장님_“와! 모금함을 만드신 거예요? 엄청 큰데요?! 다 모이면 좋죠! 다 모이지 않더라도 그래요 만들어 주세요. 한번 해 보죠!”

이음 18호점 뚜레쥬르 용마산역점 사장님_“청년들을 위한 모금함이요? 새롭네요. 저도 청년이지만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만들어서 주세요! 놓을게요”

이음 26호점 커피, 소소데일리 사장님_“모금함인데 청년을 위한 모금함이군요! 청년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이 함께하는? 새롭네요. 주시면 놓아볼게요!”



마치 서로 마음이 이어진 것처럼, 짧은 시간에 8곳의 ‘청년 모금함’ 운영 이음가게가 섭외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담아 모금함도 만들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소개지도 만들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전달 드리며 비치도 살폈습니다. 처음 제안해 주신 ‘작은 카페 홀작’ 사장님도 이음가게 33호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모금함’ 뿐만 아니라 지역이, 또 지역 주민들이 ‘살맛 나는’ 우리 동네 만드는 것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청년 모금함’ 첫 수확 이야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 모금함을 함께 운영해 주셨던 면목4동 이음가게 8곳, 4호 슬기로운카페 / 13호 CU중랑그랑데점 / 18호 뚜레쥬르 용마산역점 / 26호 커피,소소데일리 / 31호 소미경 한복 전문점 / 32호 다디단(현재 사장님이 바뀌어 ‘커피 인 코너’로 변경) / 33호 카페홀작 / 34호 해늘당 사장님들을 뵈고 상반기 동안 모인 금액을 함께 헤아려 봤습니다.



▲4호 슬기로운카페

▲13호 CU중랑그랑데점

▲18호 뚜레쥬르 용마산역점

▲26호 커피, 소소데일리

▼32호 커피인 코너

▼33호 카페홀작

▼34호 해늘당



“얼마나 모였나요?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오는 분마다 넣고 가시라고 했어요. 청년들을 위한 거라고”

“청년 모금함 처음 보는 사람도 많대요. 함께 관심 가져보자고 알렸어요”

“처음에는 모금함이라고 하니 어색해하시다가 좋은 일 돕는 마음이 좋다고 넣고 가시데요?”

“면목4동에서 청년에게 관심 있는 사장님들이 함께하는 거라고 하니 놀라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오픈했지만, 청년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에게 전달될까 기대돼요. 복지관에서는 어떤 청년들을 만나나요?”

모금함을 운영하며 4개월 동안 간직해 주신 마음도 나눴습니다. 모금액이 큰 것도 보람일 수 있지만, 사장님들 마음에 남는 감동과 생각이 면목4동을 한층 두텁게 만드는 힘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8곳의 사장님들과 손길 보태주신 손님들의 성금으로 상반기에만 164,350원이 모였습니다!!!



성금이 많이 모이면 전달을 받는 청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잔잔한 올림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잠깐 빛나는 별똥별 같은 추억으로 남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사장님! 청년들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런데 막상 쓰려니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되네요(웃음)”
“응원한다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때요?”
“좋아요. 여러 말들 길게 쓰는 것보다 진짜 마음 적어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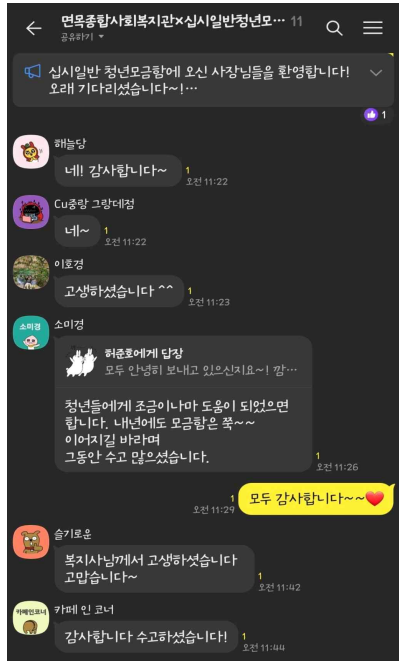
‘청년, 청춘의 시기를 멋지게 만들어 가기’, ‘건강하고 힘찬 오늘의 도약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이 되기’, ‘면목4동에도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가득함... ‘살맛 나는 우리 동네’ 만들어 가는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 ‘청년 모금함’ 마지막 수확과 전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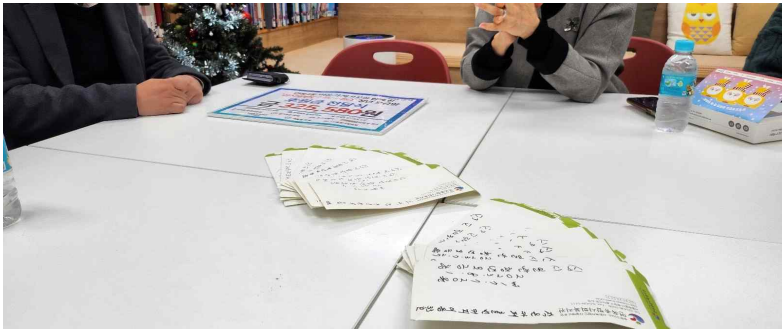
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도 모금함 운영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찾아주셨고, 무엇보다 ‘모금함 운영하고 있어요!’라며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입소문 내었습니다. 때로는 ‘짱그랑’ 동전으로, 때로는 지폐로 마음을 보태는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상반기처럼 모금액을 함께 확인하고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응원 문구를 적었습니다. 청년을 향한 관심과 기대로, ‘얼마나 모금되었을까’하는 설렘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장님들이 모두 가게를 바쁘게 운영하시다 보니 한 곳에 모여 모금액을 동시에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해늘당 사장님과 논의 끝에! SNS 대화방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청년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온라인으로 전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얼른 SNS로 초대해서 결과 알려드릴게요!”



단체방을 개설하고 모금 결과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3월부터 11월 까지 약 8개월 간 총 325,580원이 모였습니다! 감격의 순간을 전달해 드리고 모금액이 꼭 필요한 청년을 어떻게 선정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청년 중 심리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회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청년이 받으면 어떨지 논의했습니다. 적더라도 모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이면 좋겠다는 사장님들 의견이 있어 한 청년을 선정했습니다. 사장님들께 해당 청년을 글로 소개해 드리고 복지관에서 모금액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제가 받아도 되나 싶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죄송함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전해주시니 문득 조금 더 어렸을 적에 '나도 크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했던 꿈이 생각났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사실 지금은 형편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언젠가 이 마음을 기억했다가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지원받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의 마음과 관심이 잘 전달된 시간이었습니다. 모금함에 참여하였던 사장님들도 모두 입을 모아 의미가 있는 모금이었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된 과정이 좋았다는 평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모금함의 시작과 과정, 청년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모금 참여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4호 슬기로운카페 / 13호 CU중랑그랑데점

18호 뚜레쥬르 용마산역점 / 26호 커피, 소소데일리

31호 소미경 한복 전문점 / 32호 다디단(現 ‘커피 인 코너’)

33호 카페홀작 / 34호 해늘당

그리고 수많은 지역 주민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있었기에 면목동에는 인정이 흐르고 사람들이 살맛 나고, 정다움이 묻어나는 동네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청년 모금합, 그 뒷 이야기

| 동전 교환

동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액은 보통 인근 마트에서 지폐로 바꾸고, 많다 싶으면 일일이 구분하여 은행에서 교환하기도 한다. 가득 채운 저금통을 바꾸는 날엔 괜히 몸도 마음도 기분이 좋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전 교환이 녹록지 않다. 카드 사용 문화⁴⁾가 늘면서 사회 전반에서 동전의 수요를 줄이려 한다. 가게에서도 동전을 거슬러주는 일이 많지 않다. 은행에서는 동전교환기 보유 여부가 다르고 동전을 입금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 특히! 해당 은행의 통장이 있어야만, 동전 계수(동전을 금액별로 구분하는 과정)와 입금이 가능하다.

청년 모금합에서 모인 동전을 은행에 가져가면, 저마다 적게는 동전 한 뭉치, 많게는 한 자루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 사회복지사인 나는 이음가게 사장님들의 응원이 가득 담긴 동전을 들고 왔는데 다른 주민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 동전을 가져왔을까? 궁금증이 생긴

4)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매년 1300억원 정도의 금액을 동전으로 생산하면서 제조비로 500억원, 파손 동전 폐기 비용으로 100억원을 지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 궁금함도 잠시, 창구에서 모금된 총액을 듣고 나면 동전을 바꾸러 오기까지 수고로움이 싹 가신다. 이 기쁜 소식을 사장님들께 얼른 전해야지!

| 모금함

청년 모금함을 시작하니 어딜 가든 인근 복지관, NGO 등과 상점이 연계하여 설치한 동전 모금함에 눈길이 간다. ‘이 모금함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UN에서 진행하는 모금함도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스토리가 자세하다.

우리 청년 모금함도 사장님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모금함이면 좋겠다. 사장님들께 모금함과 관련한 좋거나 힘들었던 점, 인상 깊었던 사연을 살짝 여쭙는다. ‘모금함이 좀 더 작아도 좋을 것 같아요’, ‘모금함도 트렌드를 쫓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처럼요. 상점마다 특색있게...’, ‘요즘 동전보다 지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폐도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마중물이 중요하죠. 빈 모금함 보다 차있는 것이 돈을 넣기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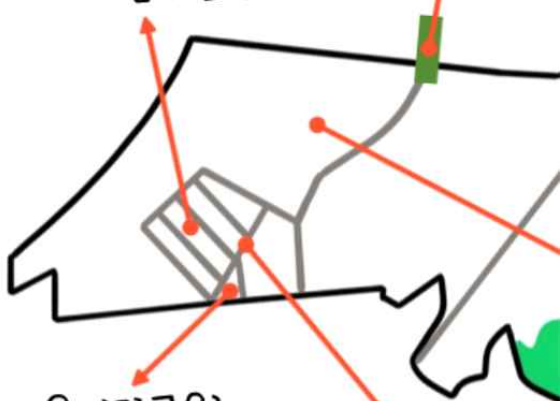
다음에 모금함을 운영한다면 받았던 피드백을 잘 반영해 보려 한다. 더 재미있게 모금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말이다.

면목7동



아동 좁길골목

사가정역



오거리공원
(행복터, 경로당)

면목시장
이음가게





주민 모임

이어지는 장에서는
4개의 주민 모임 에피소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면목7동에서는 주민들의 관계를 잇기 위해
건강 및 운동, 환경, 여가, 어르신&아동 활동 주제로
주민 모임을 정기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체조&음악 활동

만남

이지희

함께한 사람들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계시는 **김성례** 어르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김종엽** 어르신
늘 미소를 띤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서분남** 어르신
반장처럼 다른 어르신들을 챙기시는 **석은순** 어르신
경쾌한 구호로 신나게 체조하시는 **안유분** 어르신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임영숙** 어르신
목요일마다 '만남'을 위해 오거리공원에 오시는 **정갑선** 어르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정재금** 어르신

체조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오거리공원

| 야~야야! 신나는 체조 시간

2022년부터 오거리공원 어르신들과 꾸준히 페트병 건강 체조를 함께 해왔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페트병을 두드리고, 몸을 흔들다 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체조하다가 너무 신이 나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즐거운 음악과 함께하다 보니 매주 만나는 이 시간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언제나 그랬듯, 노래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활동을 시작해 봅니다. 노래를 주고받으며 이름을 부르니 더욱 정겨운 사이가 됩니다. 이제는 노래의 가락을 완벽하게 숙지한 어르신들도 계셔서 새로 온 분들이 부끄러워서 참여를 망설이면 대신 노래를 부르면서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름 아껴줬다 뭐해~ 이야기하면 좋지!”

그동안 굳어있던 몸을 준비운동으로 풀고, 각자 이름이 쓰여있는 페트병을 찾아 듭니다. 올해는 ‘야야야’ 노래에 맞춰 체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나는 구호에 맞춰 몸을 움직여봅니다.



“아~ 야야야야! 다 같이~”

빠르고 신나게 흐르는 노래에 맞춰 동작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복되는 동작을 계속하다 보니 팔을 흔드는 율동에 ‘파닥 파닥’이라는 새로운 구호들도 생겨납니다.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기도 하고, 오거리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모여듭니다.

“저도 파닥파닥 따라해볼래요~”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항상 공원에서 마주치던 얼굴이지만 아이들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동작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 더욱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 어르신들과 핸드벨 연주를 시작했어요!

흥이 많은 오거리공원 어르신과 핸드벨 연주도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처음 보는 악기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핸드벨을 만져보고 흔들어보며 차근차근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종같이 생겼네~ 음계는 모르지만, 핸드벨 색으로 소리를 구분할 수는 있겠어!”

‘고향의 봄’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 핸드벨 색으로 팀을 나눠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빨간색, 노란색 핸드벨을 연주할래.”

“그럼 나는 하늘색을 할게~”

각자 색깔에 따라 팀을 나누고, 내가 흔들 차례에 맞춰 핸드벨을 연주해 봅니다. 다른 팀이 연주할 차례에 실수로 핸드벨을 흔들 때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갑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잘 따라오지 못할 때는 주변 어르신이 짝꿍이 되어 핸드벨을 연주해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악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색깔에 맞춰 핸드벨을 연주해야 해~”
“헛갈리지만, 같이 연주하다 보니 노래가 되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우연히 오거리공원을 지나가다 핸드벨 연주를 중간에 함께하게 된 어르신은 연주를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이전부터 핸드벨을 연주해 왔던 어르신이 선배가 되어 서로 연주 방법을 알려주고 합을 맞추며 멋진 선율을 완성합니다. 오거리공원을 가득 메우는 핸드벨 선율과 어르신 웃음소리를 듣다 보면 공원을 지나는 주민들에게도 미소가 번집니다. 이 즐거운 기운이 면목7동 곳곳에 널리 당기를 바랍니다.

새활용 물고기 장난감을 만들어요

| 도서관 폐기 도서로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고?

북지관에 있는 아람인도서관에서는 매년 약 200권의 폐기 도서가 발생합니다.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많은 종이가 단순히 버려지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자원순환이 된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이 과정을 어르신들, 사회복지 현장실습생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과 간행물을 활용하여 물고기 장난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책과 신문지를 찢으면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봅니다.

“내가 살다 보니 신문지도 찢어보네~”

“찢으니까, 화도 풀리고 좋아!”

스트레스도 날리고 소근육도 사용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열심히 찢은 종이를 투명 비닐봉지에 넣고 스티커와 고무줄로 멋진 물고기 모양을 완성했습니다. 직접 만든 물고기 이름도 정해봅니다.

“내 이름엔 ‘종’ 자가 들어가니까, 애 이름은 종남이야~”

“나는 장어를 좋아하니까 내 물고기 이름은 장어야!”

“내 물고기는 귀여우니까 귀요미로 할래.”

물고기 이름을 짓고 대화를 나누며 웃음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물고기 이름을 적어 장난감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물고기 장난감은 다음 주에 공원에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아동 낚시 게임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귀여운 물고기 장난감으로 즐겁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뿌듯해집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아끼는 마음도 듬뿍 담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름 방학식 이야기

| 주렁주렁 추억 빨랫줄

어느덧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8월이 되어, 열심히 체조하다 보면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땀이 나더라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아~!”

“평소에 잘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라도 운동을 해야지!”

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의 운동 열정은 식지 않았지만, 8월 한 달 동안 폭염을 피해 잠시 여름방학을 갖기로 했습니다. 방학식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을 빨랫줄처럼 끈에 대롱대롱 매달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활동이 가장 어려웠는지, 가장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나는 예전에 페트병 체조 도구를 꾸미는 게 예뻐서 좋았어!”

“핸드벨 연주가 제일 헛갈리고 어려웠지만 연주하는 재미가 있지!”

“나는 비닐봉지로 물고기 만드는 게 제일 좋았는데~”

“체조하는 것이 제일 즐겁지!”



새활용 물고기 장난감 만들기, 페트병 꾸미기 등 다양한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느새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보니 추억 빨랫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어르신들과 9월 만남을 기억하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빨랫줄 가득 추억이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모습을 보니, 벌써 9월이 기다려지는 기분입니다.

‘만남’으로 매주 만나요

| 우리는 어떤 사이? 주마다 보는 사이!

어르신들과 꾸준히 체조를 거듭하다 보니,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체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신나는 분위기 속에 문득 가사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목요일마다 약속한 것처럼 오거리공원에서 모이는 우리의 만남을 각자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 모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우리는 ‘만남’이야. 목요일마다 공원에서 만나니까 ‘만남’이지 뭐~”

명쾌한 정재금 어르신들의 답변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모이면서 안부도 여쭙 수 있고, 동네 소식도 듣게 되고, 체조를 하면서 건강해지고, 멋진 핸드벨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우리를 이보다 잘 표현하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만남’으로 만나며 더욱 정겨워질 앞으로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만남’ 책거리 이야기

| 우리, 송년회 한번 할까요?

체조도, 핸드벨 연주도 열심히 하다 보니 함께 연습해 봤던 노래가 많아졌습니다. ‘누이’, ‘야야야’, ‘멋진인생’, ‘나비아’, ‘고향의 봄’, ‘루돌프 사슴코’ 등... 노래를 되짚어보니 한 해가 알차게 느껴집니다. 12월이 되어 2023년을 보내주기 전에, 그동안 같고 닮았던 우리의 실력을 기념하는 책거리 겸 송년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싸온 간식도 나눠 먹고, 그동안의 만남을 돌아보며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거리공원 행복터에 모였습니다.

함께 나눠 먹기 위해 굴을 한 박스나 사 오신 어르신, 집에 있던 과자를 한가득 가져오신 어르신... 정이 넘쳐 흐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지만, 올해 마지막 모임을 기념하고자 오신 분들과 함께 예쁜 망토와 장갑을 갖춰 입고 체조와 핸드벨 연주를 멋지게 해냈습니다. 활동사진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추억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봅니다.

“나는 핸드벨 연주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재미있었어~”

“나는 목요일마다 체조하려고 그 시간에 오거리공원에 오게 되었는데!”

“저 사진은 내가 예쁘게 나왔네!”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니까 기억이 더 잘 나는 것 같아~”



영상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니,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다음 해에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 함께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과 다음 해에도 체조와 음악 활동으로 만남을 이어나가자는 약속도 나눕니다.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보자는 인사도, 두 살 말고 한 살만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는 농담 섞인 다짐도 주고받습니다. 따뜻한 덕담과 훈훈한 온기로 마음을 가득 채우니 내년의 ‘만남’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오거리공원 환경 테마

아동 정기 활동

이예진

함께한 사람들



공원에 놀러 오면 늘 재밌기만 한 정채은 아동
면목7동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김아은 아동
공원에서 축구하는 것이 좋은 정지안 아동
아동 정기활동 일정을 잘 기억하는 신민호 아동
줍김으로 깨끗해진 공원을 보는 것이 뿌듯한 호유진 아동
계란판 탁구 환경 놀이에 자신 있는 텔문 아동
매주 공원에서 놀며 쑥쑥 자라나는 이승연 아동

환경 놀이 활동

| 버려지는 물건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면목7동에서 ‘환경’ 주제로 마을 활동을 진행했던 흐름을 이어가고자 고민하던 가운데 다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것을 아이들이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오거리공원에서 아이들의 놀이 활동을 해왔던 전통을 이어 2023년에는 골목줍깅과 더불어 환경 놀이 활동을 추가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환경 놀이, 셋째주와 넷째주에는 골목 줍깅을 하는 것으로 오거리공원 아동 정기활동의 일정을 정해 틀을 잡았습니다.

환경 놀이는 버려지는 물건을 놀이 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뚜껑모아 캠페인으로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 주민자치회에서 모아주신 계란판, 지역 상점에서 모아주신 종이팩 등을 놀이 활동에 활용했습니다.



“병뚜껑으로 탑 쌓기 놀이하자! 누가 제일 높게 쌓는지 대결하는
거야~ 친구들을 방해하거나 일부러 건드려서 무너뜨리면 반칙이야!”

“선생님! 이것 봐요! 저 완전 높이 쌓았어요!”

“전 분홍색이랑 보라색 병뚜껑으로 색깔을 맞춰서 쌓아볼래요~”



“계란판 빙고 한번 해볼래? 탁구공을 한 줄로 올린 계란판을 잘 튕겨서 가장 먼저 끝까지 보낸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아! 탁구공이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와~ 대박! 나 방금 한 번에 두 칸씩 옮겼어!”

“선생님, 저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대결해요!”



“종이팩 젠가 할 사람~? 종이팩이 쓰러지지 않게 잘 빼내야 해~”

“이거 빼볼래요! 와~ 아직 안 쓰러졌어요!”

“으악!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자!”

“이걸로 도미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매주 목요일, 오거리공원에서 ‘환경’을 주제로 정기활동을 이어오며 환경을 아끼는 마음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이어지는 골목줍깅 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줍깅 활동

| 줍깅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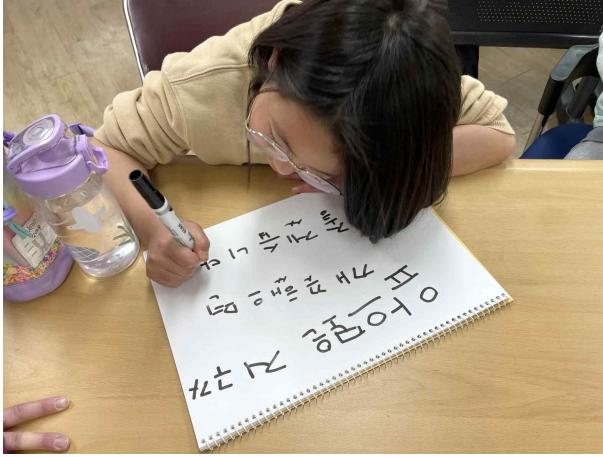
오거리공원과 면목7동 골목 주택가를 다니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줍깅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공원에 아이들이 모이면 ‘환경지킴이’ 어깨띠를 맨 후 바구니와 집게를 양손에 들고 줍깅을 떠납니다.



“선생님, 비가 왔다고 화단에 풀이 벌써 자라났어요~ 쓰레기를 잘 치워줄래요.”

“담배꽂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담배를 그렇게 자주 피우나~”

줍깅 활동을 마친 후에는 주운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종이로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뒷정리까지 책임지고 깔끔하게 끝냅니다. 줍깅 출석 도장을 찍은 후에는 활동에 대한 소감을 스케치 북에 적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구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조금이라도 도와준 것 같아서 좋아요♡”

골목줍깅 정기활동으로 점점 깨끗해지는 오거리공원과 골목길을 보며 아이들은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골목을 다니는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오거리공원’이라는 공간을 생각할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환경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거리공원에서 정기활동으로 함께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협동하고, 순서를 양보하고,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합니다. 환경을 위해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법, 버려진 물건을 새롭게 활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마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쌓이며 우리 동네를 더욱 아끼게 되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기활동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께 삶의 지혜를 배우는

마을 선생님

이예진

함께한 사람들



손주같이 아이들을 예뻐하시는 **고수배** 어르신
나눠 먹을 간식 챙겨오신 **김종순** 어르신
아낌없이 아이들을 칭찬하시는 **유정남** 어르신
설레는 마음으로 마을 선생님 참여하시는 **김영숙** 어르신
뒷정리를 늘 깔끔하게 맡아주신 **임춘랑** 어르신
즐거한 쌀떡 직접 뽑아오신 **박상옥** 어르신
과일화채 만드는 법 알려주신 **탁순화** 어르신
아이들이 다투지 않게 재료를 나눠주신 **김성자** 어르신

삶의 지혜를 나누는 마을 선생님

| 마을 선생님 활동을 기획하다

동네 어르신들이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 취미를 즐기고, 더 나아가 ‘선생님’이 되어 동네 아이들과 나눠보고자 마을 선생님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요리’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 8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복지관에서 잡채를 만들어보며 서로 합을 맞춰보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하며 요리를 알려주는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함께 정하고, 준비 재료는 마을 선생님이 조금씩 나누어 각자 가져왔습니다.

|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요?

마을 선생님이 아이들과 김밥과 과일화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한 소감을 여쭙었더니, 아이들과 함께하니 에너지도 생기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복지관이 아닌 새로운 공용주방 공간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알려주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마을 선생님의 풍부한 삶의 지혜로 첫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이 계속해서 마을 선생님이로 만나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어르신이 ‘마을 선생님’으로 역할 하시며 활동에 의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거두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며 동네 어른으로서 역할 하시고, 아이들은 궁금했던 것을 배우고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핵심임을 전달하자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걸 신경 써서 해야겠네~” 하셨습니다. 다음 떡볶이 만들기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알려줄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정리했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의 이름도 잘 기억해서 직접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떡볶이 떡이랑 어묵을 먹기 좋게 잘라볼래? 가위에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

“그렇지~ 너무 잘하네!”

준비했던 대로 마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떡볶이 만들기 활동에 이어 그다음 부침개 만들기 활동에서도 서툰 솜씨지만,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기다리며 도와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로 깊어지는 마음

| 12월 마지막 활동 준비

마을 선생님 활동은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었는데, 어느덧 12월이 되어 마무리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며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함께 논의하여 2023년 마지막 활동으로 마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국수를 맛있게 삶아주고, 아이들은 마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쿠키를 구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당일, 마을 선생님은 능숙한 솜씨로 금세 국수를 만들어 주셨고, 아이들은 맛있게 구운 쿠키와 함께 드릴 편지에 감사의 말을 적으며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음식 만들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이고~ 고마워라!”

“나라고 못 안아주겠어~? 이리 와 봐~ 나도 안아줄게요~”



아이들이 직접 적은 편지를 낭독하자 마을 선생님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감사한 마음이 마을 선생님께 잘 닿았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아이들이랑 마을 선생님 해야지~?”

“내년에는 어떤 음식 만들 거예요? 내년에 꼭 연락해 주세요!”

함께하는 마을 선생님도, 아이들도 내년의 활동을 기대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선생님께 삶의 지혜를 정겹게 배운 시간이 2024년에는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거리공원 행복터

건강돌봄 동네모임

이지희

함께한 사람들



동네에 친구가 많으신 권수연 어르신
뭐든지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김원화 어르신
늘 공사다망한 능력자 김한선 어르신
손녀 바라기 노길녀 어르신
감미롭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 박영순 어르신
멋진 패션 감각이 있는 유정남 어르신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우신 이성예 어르신
귀여운 왕언니 장동화 어르신
독서의 여왕 장미자 어르신
손이 크고 인심이 넉넉한 장정자 어르신

함께 건강해지는 면목7동 동네모임

| 또 보니, 또 반갑네!

면목7동에는 건강에 관심 있는 어르신 열 분이 모여 매주 목요일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신 어르신은 여행지에서 사 온 간식 보따리를 잔뜩 풀어 정을 나눕니다.

“초콜릿이 참 맛있네~ 좋은데 다녀왔나 봐!”

“언니는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동안 잘 있었어?”

간식과 함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나가니, 면목7동 행복터에 화기애애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서로 아픈 곳은 없었는지 안부도 묻고 최근 수술을 마친 분에게는 건강관리 꿀팁도 전수해 줍니다.

“수술 후에는 잘 먹고 잘 쉬어야 해~”

“나도 백내장 수술했었는데, 관리 잘하면 금방 나아지더라고!”

오늘은 담소를 나누며 나만의 달력을 꾸미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동네모임 일정이 있는 날에는 빨간색 표시를 해두고,

꽃 스티커를 예쁘게 붙여 달력을 완성했습니다. 숫자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덧 꽃밭처럼 화사하게 완성된 달력을 보고 뿌듯해하는 어르신, 박수를 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매주 까먹지 말고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날에는 꼭 나와야겠네~”
“내 달력 너무 예쁘네, 집에 두면 딱 좋겠어!”

| 한방강의로 건강을 관리해요

동네모임 어르신들과 한방강의에 관심이 있는 면목7동 어르신들과 함께 면목7동 주민센터에 모였습니다. 중랑구 한의사회 조후원 원장님과 이은숙 사무국장님께서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한방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몸의 혈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증상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유익한 강의를 듣다 보면 평소 건강 고민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에요.”

“나도 요즘 무릎이 아픈데!”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욱 친해지는 기분입니다. 혈 자리를 서로 직접 눌러주는 실습도 해보고, 허리에 좋은 운동도 일어나서 함께 해봅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동작을 따라오기 어려워하면,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 집에서 키우기로 한 방울토마토와 화분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매주 화분이 멋지게 자라나는 사진을 올려주시는 어르신에게는 비법을 묻기도 합니다.

“우리 집 화분은 시들시들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워요?”

“너무 햇빛이 많은 곳에는 두면 안 돼~”

한방강의로 만남을 거듭하다 보니, 동네모임에 관심을 가지시는 어르신도 생겼습니다. 오거리공원 행복터에 모여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분과 함께하게 되니 든든합니다. 한방강의에서도, 동네모임에서도 마음은 나누고 건강은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가을바람 선선할 때, 나들이 떠나요!

그동안은 오거리공원 행복터 안에서만 만났지만, 모처럼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날씨라 어린이대공원으로 소풍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간식도 나눠 먹고, 귀여운 동물들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정말 오랜만에 가보네~”

“나는 어제 소풍 간다고 생각하니까 설레더라고~!”

들뜬 마음으로 공원을 둘러보다 보니, 출출해집니다. 평상에 앉아 각자 싸 온 간식을 나눠 먹기로 합니다. 바나나, 떡, 과자, 꿀, 사탕..

큰 가방에 잔뜩 간식을 싸 오신 장정자 어르신이 눈에 띕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싸 왔어~?”

“나는 어제 소풍 간다고 장도 봐왔지!”

“나는 소풍 간다고 하니까, 딸이 음식을 싸줬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모여 풍성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젊었을 적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다 보니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 모임에 합류한 분들도 어느새 어색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정답게 이야기 나눕니다.

“매주 소풍 갔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었다!”

“우리 다음에도 꼭 날씨 좋을 때 같이 가요~”



예쁜 꽃밭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추억을 간직해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동네모임 어르신들 얼굴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 2023년을 보내며

2023년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동네모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나게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피커, 블루투스 마이크, 미러볼이 있으니 금세 오거리공원 노래방이 똑딱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운 마음에 노래를 부르기 망설이던 어르신도 마이크를 잡으니 멋진 가수가 되셨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됩니다.



“저 사람은 춤을 정말 잘 추네!”

“춤을 배운 적은 없지만, 나는 원래 춤을 좋아해요~”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목이 마를 정도로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각자 싸 온 간식과 음료수를 나눠 먹으며 한 해 활동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들기 활동이 가장 좋았다는 장동화 어르신, 체조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다는 박영순 어르신, 나들이 활동이 가장 즐거웠다는 김원화 어르신, 각자 동네모임에 함께하면서 의미 있게 느껴졌던 추억 한 조각씩 꺼내봅니다. 그동안 동네모임이 각자 어떤 모임으로 느껴졌는지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한테는 형제 같은 모임이야.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가 없는데, 매주 목요일에 여기로 오면 형제같이 반겨주니까 좋았어.”

“만나면 반갑고 친근한 모임이지~ 계속 보고 싶고!”

2024년에도 형제 같은 모임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반갑고 친근하게 서로를 맞이해주기로 합니다. 동네에 형제 같은 사람이 생겼으니,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습니다.

지역 축제

이여지는 장에서는 면목7동 주민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면목7동에서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거들기 위해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거리공원에서는 '환경놀이'를 주제로
지역 축제를 열어 다양한 주민들과 어울렸습니다.

오거리공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한

환경 놀이 축제

이예진

함께한 사람들



축제 준비에 함께한 정기활동 어르신 & 아동
환경 놀이 축제 기획단 구하리, 이무진 아동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한 면목7동 환경봉사분과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하다

| 오거리공원 어르신과 포토존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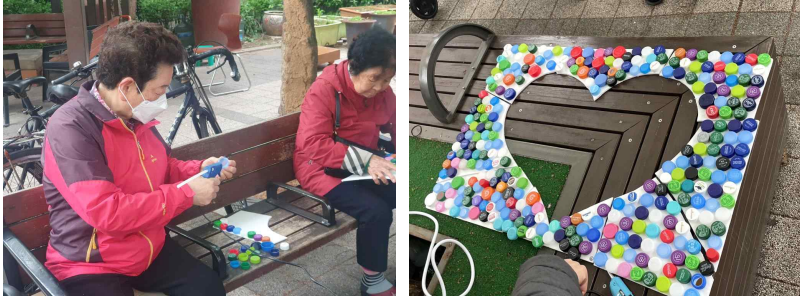
면목7동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축제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오거리공원 정기활동 어르신, 아이들과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면목7동 마을활동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오거리공원 어르신의 경우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축제 부스를 맡아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축제에 필요한 물품은 직접 꾸며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진행된 환경 놀이 축제에서는 오거리공원 어르신이 포토존을 맡아서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축제를 앞둔 어르신 정기활동에서 버려지는 우드락과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 하트모양 사진판을 만들고, 색종이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 꽃 모빌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 못해~ 구경만 할게.”

“에이 어르신~ 잘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잘하실 수 있다고 격려하며 거들자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드락에 글루건으로 병뚜껑을 붙여나가자 어느새 알록달록한 병뚜껑 사진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 병뚜껑 사진판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가운데 하트가 너무 예쁘게 잘 보이죠~?”

“완성해 놓으니 이쁘다~!”

“작품이 예쁘게 만들어지니 뿌듯하네!”

다음은 병뚜껑 사진판 옆에 달아놓을 꽃 모빌을 만들었습니다. 색종이를 풀과 테이프로 붙여 꽃을 만들고, 꽃의 수술 부분을 병뚜껑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만들기 활동을 하자 정기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어르신들도 오셔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예쁘네!”

“나도 하나 만들어볼래요~ 어떻게 하면 되지?”



함께 꽃 모빌을 만들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이 사람 손재주가 참 좋네! 꽃을 예쁘게 잘 만들어~”

“아니아~ 당신이 만든 꽃이 더 예뻐!”

서로가 만든 꽃을 칭찬하며 어르신 정기활동의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집니다. 어르신의 손길로 만들어진 병뚜껑 사진판과 꽃 모빌로 포토존을 꾸민다면 얼마나 예쁠까요? 예쁘게 꾸며진 포토존을 기대하며 정기활동 어르신께 꼭 구경하러 오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 오거리공원 아이들과 간판 제작

오거리공원 아이들과는 축제 부스에 쓰일 간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종이박스 등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병뚜껑으로 글자를 만들려고요! 글루건으로 붙일래요!”

“제가 만들었다고 이름도 적었어요! 제가 만든 간판이 축제 때 걸리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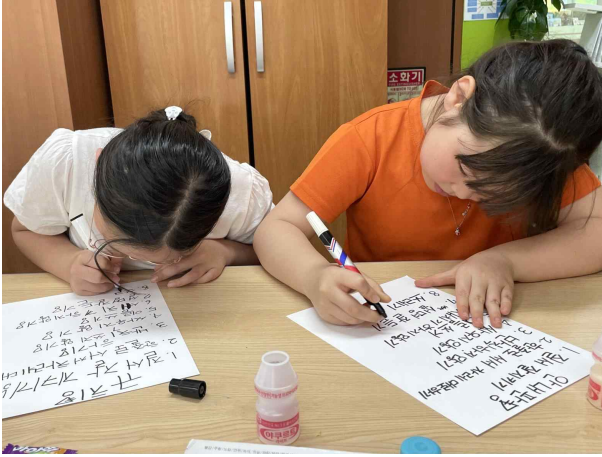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환경 놀이 축제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또박또박 큰 글씨로 예쁘게 적었습니다.



환경 놀이 축제 부스의 간판과 축제 안내문이 아이들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을 오거리공원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축제 현장에서 확인한다면 아이들도 뿌듯함을 느끼고 더욱 즐겁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보자!

2022년 오거리공원 축제에서 함께했던 하리, 무진이에게 이번 환경 놀이 축제 부스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흔쾌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축제에 참여하고 즐겁게 진행한 기억이 있으니 더욱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었습니다. 두 아이와는 정기활동이 없는 날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부스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페트병 볼링 놀이 부스의 페트병 볼링핀, 병뚜껑 농구 놀이 부스의 농구 골대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환경 놀이 축제 준비 회의하는 것 좋아요!”

“카카오톡 채팅방 이름도 새로 바꾸었어요~”

질서 잘 지키기,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하기, 반칙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아이들과 직접 의논하여 규칙을 정했습니다. 직접 정한 규칙이니 축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더 잘 안내할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부스를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됐습니다.

사전이벤트 버쓰데이 콘테스트

| 온라인으로 지역주민을 만나다

환경 놀이 축제의 사전이벤트로 버쓰데이 콘테스트를 기획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새롭게 재탄생한 지역주민의 작품 사진을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전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더욱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면목7동에서 진행되는 복지관의 환경 활동을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HAPPY BIRTHDAY
버러진 물건도 다시 쓰는 데이 콘테스트
버려지는 쓰레기가 재탄생되어 다시 사용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가방법 (4/12 수 ~ 5/3 수)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하여 새롭게 재탄생한 나만의 작품 사진을 **010-5769-0577** 번호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전송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작품만 인정

우수 참여자 발표 5월 6일(월) / 개별연락
우수 참여자 시상 5월 11일(목) / 오거리공원

문의 010-5769-0577 / 02-436-0500
상품 1등~3등 / 친환경 물품

주관 면목7동 주민자치회 환경봉사분과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축제를 홍보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홍보가 중요했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복지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하며 버쓰데이 콘테스트를 알렸습니다. 중랑구 지역주민의 가장 큰 네트워크 중 하나인 마을넷 채팅방에도 홍보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오거리공원에서 환경 놀이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예요. 사전이벤트로 버려진 물건도 다시 쓰는 버쓰데이 콘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가게에 찾아오시는 주민분께 한 번씩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이번에도 재밌는 거 하네!”



이음가게를 다니며 사장님들께도 버쓰데이 콘테스트와 환경 놀이 축제를 알렸습니다. 이음가게가 위치한 면목시장과 오거리공원이 가깝게 있으니 지속적으로 축제와 캠페인, 이벤트를 알리며 지역 활동에 더욱 관심 가지실 수 있도록 거들었습니다.

| 지역주민의 기발한 아이디어

복지관 이용자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버쓰데이 콘테스트 참여 신청이 조금씩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활용하여 만든 미니어처 인형 놀이 소품, 유리공예로 만든 와인병 시계, 종이박스와 버려진 끈을 활용해 만든 모빌, 오래된 동화책을

활용해 만든 트리, 페트병으로 만든 양말 보관함 등 환경을 아끼는 지역주민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총 1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면목7동 주민자치회 환경봉사분과 회의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참여자 4명을 선발했습니다. 우수 참여자뿐 아니라 버쓰데이 콘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주민을 환경 놀이 축제 당일 시상식에 초대하여 상장과 환경실천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선물은 중랑구 제로웨이스트샵 보텀상점과 한살림 매장에서 지속적인 환경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친환경 물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환경 놀이 스탬프 투어 시작!

| 환경 놀이 부스

드디어 환경 놀이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침 날씨도 참 맑고 좋았습니다. 오거리공원에 아침 일찍 도착해 정기활동 어르신과 만든 병뚜껑 사진판과 꽃 모빌을 행복터 처마 밑에 예쁘게 매달아 꾸며놓았습니다. 정기활동 아이들과 함께 만든 부스 간판과 안내문은 오거리공원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손길로 완성된 축제 현장은 더욱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축제는 총 6개의 환경 놀이 부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복지2팀 사회복지사, 주민자치회 환경봉사분과 위원들, 하리와 무진이, 지역주민 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와하하! 내가 이겼다!”

“한 번 더 하자~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총 6개의 환경 놀이 부스를 모두 참여했다면, 마지막으로 포토 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간식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놀이 축제를 즐기는 지역주민들의 밝은 미소가 찰칵! 추억이 되어 사진에 담겼습니다.



“아주 예쁘다 예뻐!”

“아유~ 골대 들어갔네! 나 성공한 거야?”

어르신과 함께 만든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잘 남겼습니다. 병뚜껑 사진판과 꽃 모빌로 예쁘게 꾸며진 모습을 보시곤 아주 예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축제에 구경하러 오신 만큼 환경 놀이 축제 부스에도 직접 참여해 보셨습니다.

| 버쓰데이 콘테스트 시상식

환경 놀이 축제의 사전이벤트로 진행되었던 버쓰데이 콘테스트 시상식도 진행했습니다. 미리 안내된 시간에 맞추어 주민분들이 모두 도착해주셨고, 주민자치회장님과 환경봉사분과장님이 시상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버쓰데이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우수 참여자의 작품을 소개하며 격려의 박수를 돌렸습니다. 버쓰데이 콘테스트와 환경 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앞으로 지역에서 '환경'을 주제로 더욱 즐거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캠페인

이어지는 장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을 주제로 캠페인을 이뤄간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중량마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종이팩 착한순환 캠페인의 거점으로 활동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과 이뤄간

종이팩 착한 순환 캠페인

박민아

다시 돌아온 종이팩 캠페인!

|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다

“우유팩 이제 안 모으나요?”

작년 한 달간 진행했던 ‘종이팩모아 캠페인’을 기억한 주민이 복지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셋 키우고 있어서 우유를 많이 마시고, 특히 멸균팩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아서 집에 타포린 백으로 한가득 가지고 있던 것을 복지관 근처 불 일이 있던 차에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캠페인은 종료되어서 휴지로 바꾸어드릴 수가 없다고 안내하니, 휴지는 받지 않아도 괜찮다며 종이팩만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활용한 스마트 IoT 종이팩 배출함도 이미 사용해 보았는데 종이팩을 한 장씩 바코드를 인식시켜 배출해야 하고, 바코드 인식도 한번에 되지 않아서 다량의 종이팩을 배출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캠페인 소식을 듣고 생각 날 때마다 종이팩을 헹구고, 자르고, 펼쳐서 모아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가볼까 전화를 주신 분도 있었고, 재생 휴지로 바꾸어 받고 싶은 마음에 실천해본 주민도 있었습니다.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다른 곳을 홍보지로 정리하여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랑구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보탬상점’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보탬상점이 있는 7호선 중화역까지 가기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스마트 IoT 종이팩 배출함을 이용하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기 작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캠페인 참여 연령대가 대부분 어르신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은 있는데 전달상의 장애물로 인해 실천해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 중랑마을지원센터와 손을 잡다

연초 우리 복지관에 중랑마을지원센터가 기관방문을 왔습니다. 복지2팀에서 마을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줍깅, 종이팩모아 캠페인 등 환경실천활동에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중랑마을지원센터도 센터 본연의 역할인 주민의 마을 참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자체 사업으로 종이팩 자원순환 활동을 해볼까 싶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종이팩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매개로 더 많은 주민이 연결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보탬상점과 같이 종이팩을 따로 수거하는 거점 공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휴지를 보상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환경을 살리는 데에 의미를 두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중량마을지원센터장 조영옥님과 종이팩 자원순환 캠페인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조영옥님은 보텀상점을 운영하는 그물코협동조합과 한살림동서울생협 이사로, 종이팩 자원순환과 관련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면목3·8동에 있는 까치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알려주는 강사로 처음 만나 2022년 종이팩모아 캠페인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는데, 올해에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끝에 우리 복지관과 중량마을지원센터가 맺게 된 종이팩 착한순환 캠페인 협약! 주요 내용은 복지관이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는 수거 거점으로 활약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돕고 모인 종이팩 수량을 세어 최종 수거거점인 한살림생협 신내매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종이팩 종류, 크기에 따라서 재생이 가능한 펄프 양이 다르므로 각각에 부여하는 포인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속이 하얀 종이팩 중 900mL 이상은 15포인트, 450mL 이상은 10포인트, 200mL 이상은 5포인트, 속이 은색인 멸균팩은 크기 무관하게 모두 2포인트로 정했습니다. 1포인트를 1원으로 계산하여 연말 종이팩 기부 포인트를 가지고 한살림동서울생협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카페에는 중량구 로고가 들어간 스티커를 문바깥에 붙여드리는 것 어떨까요?”

“최종 수거거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에요. 함께할 주민을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참여를 독려하려면 종이팩을 모으는 것이 기부의 일환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같이 홍보해야겠어요!”

“인식개선은 사실 대화 없이 쉽지 않아요. 참여의 의미를 일대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니 더 많은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홍보지와 상점 출입문에 부착할 스티커는 중량마을지원센터에서 만들어 공유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은 팩모아정거장을 운영하면서 종이팩을 모아줄 카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종이팩으로 연결되는 우리

| 동네에 알리다

‘종이팩 착한순환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관과 면목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홍보지를 붙이고, 면목7동에 있는 카페 또는 베이커리 중심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동의 분리수거장에 게시를 허락받았을 때, 막상 주민분들이 종이팩을 종이류로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씻고 말려서 복지관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 기대 반, 염려 반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유팩 다시 모은다고?”

복지관 1층 로비에 팩모아정거장을 다시 설치한 6월이 지나고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팩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6월에는 500개 조금 못 되게 모였는데 7월이 되어서는 1,500여 개에 달해 3배가 늘어났습니다.

면목7동에 있는 카페에는 하계 사회복지 실습생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를 모두 찾아 목록을 만들고 한 곳씩 다니면서 종이팩 자원순환의 의미를 전하고, 매장에서 나오는 모든 종이팩을 분리배출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만큼 종이팩을 행구고 자르고

말리는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의향을 여쭙었습니다.



“우리는 우유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매장이 좁아서 말렸다가 모아 주지 못해요. 행구지 않고 그냥 주거나 홍보지를 붙여주는 것은 가능해요~”

“여기는 종이팩을 내놓으면 폐지 수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상점도 있었고, 2022년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흔쾌히 수락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종이팩 착한순환 캠페인 참여상점 5곳! 매장에서 종이팩을 모아주시면 매주 목요일 복지2팀 사회복지사들이 종이팩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상점마다 종이팩이 나오는 수량이 적으면 5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라, 격주 방문을 요청하는 곳도 있었고 매주 방문해서 바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방문 일정을 조율해가면서 만나고, 종이팩을 받으러 가는 때 말고도 회의하거나 주민을 만날 때 카페를 방문하면서 자주 얼굴 비추었습니다. 한 상점에서는 영업

종료 후 새벽에 종이팩을 잘라 정리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성에 놀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 자원순환활동가 이야기를 듣다

중랑마을지원센터 주도로 종이팩 수거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중 신내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우리 복지관에서 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만 모이는 회의보다는 실제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주민들이 자원순환활동가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 삼아서 밤에 동네를 돌아다니면 종이팩을 내놓은 가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다 씻어서 빨래집게로 널어놓지.”

“나는 종이팩이 마르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수건으로 다 닦아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것도 내가 가지고 오는걸.”

많은 양의 종이팩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고 계셨습니다. 그 바탕에는 동네를 향한 관심과 복지관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고물상에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 묻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다 면목동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한 일이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서 좋고 고맙지요.”

“복지관을 이용하다가 붙어있는 홍보지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못할 것 없지요~”

종이팩 기부로 포인트가 쌓이면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전하면 좋을지도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연말에 모이는 종이팩 수량에 따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간식 같은 걸로 주면 좋겠네요.”

“복지관에 경로식당 밥 먹으러 오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쌀을 주면 어떨까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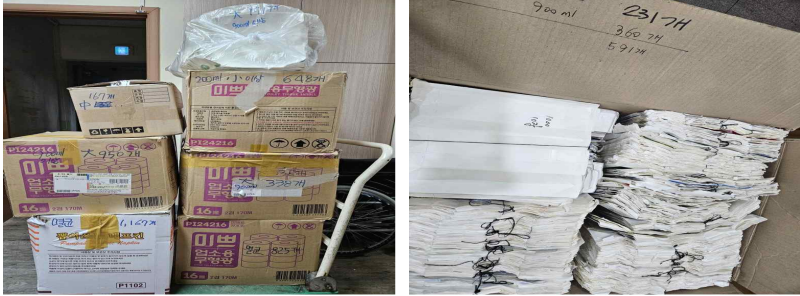
가장 좋은 것은 어디든 분리배출 하는 곳에 종이팩 수거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휴지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곳에 잘 전달되는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는 것임에 모두가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습니다. 자치구 행정과도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매번 종이팩을 잘 정리해 20장씩 고무줄로 묶어서 가지고 와주시는 박현순 어르신과는 간담회에서 모이지 못해 팩모아 정거장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평소 환경 실천에 관심이 많아서 샘터공원 앞에 있는 슈퍼빈에도 투명 페트병을 모아 분리배출하고 있고 스마트 IoT 종이팩 배출함에도 종이팩을 배출해서 51,000포인트나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장과 소소한 선물을 드리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종이팩을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하하호호 웃음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 2023년 모은 종이팩 14,865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 지역상점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 무관하게 모두 14,865개나 모았습니다(일반팩 200mL 이상 2,970개, 450mL 이상 544개, 900mL 이상 5,939개, 멸균팩 5,412개 /2023.12.05.기준).

이 중 속이 하얀 일반팩으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만들면 약 500개가 되고 30년생 소나무 3그루를 심은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팩을 모아 기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종이팩 개수를 세어주신 노인사회활동 어르신들의 손길 덕분입니다. 격주로 환경지킴이단 A팀, B팀이 돌아가면서 종이팩을 종류별로 세어주셨습니다.



“10개씩 세어서 저에게 주세요~”

“이게 126개라고? 외워야지. 외우면 치매도 안 걸릴 수 있어~”

“종이팩이 그래서 이렇게 모아 갖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 이게 휴지가 되는구나. 그치~ 나무를 덜 벤다잖아~”

개수 세는 작업에 점점 능숙해지신 어르신들은 종이팩이 이후 어떻게 되는지 행방을 궁금해하시고, 집에서 한번 모아봐야겠다고 관심 가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만 4천 개가 넘게 모인 종이팩 수량을 듣고 그동안의 노력에 모두 박수치면서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 녹색병원에 갑티슈로 기부하다

‘종이팩 착한순환 캠페인’으로 함께한 수거 거점으로 우리 복지관 말고도 5곳이 더 있습니다. 보탬상점과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 NPO지원센터, 망우마중마을활력소, 한살림동서울생협 신내매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각 공간에서 모은 종이팩을 포인트로 환산해 보니 무려 25만 2,661포인트나 되었습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연말에 ZOOM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룹홈과 같은 생활시설에 생필품 키트로 전달해 보는 의견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공익형 민간병원 녹색병원에 갑티슈로 기부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되어 종이팩으로 만든 갑티슈를 녹색병원에 전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지 못하니 방문 의료와 가정간호를 받는 주민과 돌봄 제공자,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수급권자 및 무연고자 등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의 팩모아정거장, '종이팩 착한순환 캠페인'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잠깐의 수고로움으로 지구도 살리고 이웃도 도울 수 있는 활동에 모두 함께해주세요~!

지역에서 협력하기

이어지는 장에서는 지역에서 함께 협력한
2개의 에피소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면목7동에서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환경'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고,
이음가게 사장님과 소통하며 동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목7동 주민자치회 협력 활동

환경봉사분과

최영주

함께한 사람들



면목7동 주민자치회에 없어서는 안 될

김해숙 회장님, 김희 사무장님

따뜻한 마음으로 분과사업을 이끌어 간 **김영순 분과장님**

넘치는 에너지로 지역주민과 함께한

박현숙, 오화근, 오화선, 이호일 자치위원님

환경으로 이어지다

| 첫 발걸음, 시작

2023년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환경봉사분과는 김영순 분과장님이 선출되었고 저는 총무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이 넘치는 분과장님과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자치위원분들과 만들어 갈 면목7동 마을사업이 기대됩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여정! 환경 놀이에 사용할 양파망, 페트병, 병뚜껑을 함께 모았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고 남은 양파망 있는데 필요해?”

“콜라병도 될까? 크기는? 페트병은 내가 모아줄게”

“계란판은 내가 모을게요. 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만 모아도 충분할 거야.”

이렇게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였고 우리의 첫 번째 여정, 환경 놀이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지구야, 힘내!

일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탄소가 환경에 왜 좋지 않은지,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느새 푸른 숲으로 변신한 캠페인 현장!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면목7동 주민들의 마음이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지구를 지키고 깨끗하게”

“지구야, 살게 해줘서 고마워”

|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첫 번째, 탄소발자국 ‘탄소배출 알아보기’

두 번째, 탄소발자국 ‘일상 속 탄소 절감 실천’

세 번째, 탄소발자국 ‘푸른 지구 만들기’

탄소절감, 푸른지구 캠페인은 이렇게 3단계로 환경봉사분과, 이음가게, 오거리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 아동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작게 줄어든 탄소발자국을 확인하셨나요?



면목7동 환경 수호단들이 6월, 9월 빗자루를 들고 오거리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 부모님들과 함께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집어 들었습니다. 오거리공원부터 시작하여 면목7동 골목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담배꽂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쓰레기들이 섞여 있어서 줍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버려진 쓰레기를 담으며 마을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한자리에 모이다.

명절 때마다 치솟는 물가, 사과 한 개가 만원? 기후 위기가 식량 문제에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체감한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진 우리가 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격보다는 가치를 담은 소비를 해보자.”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여 유통과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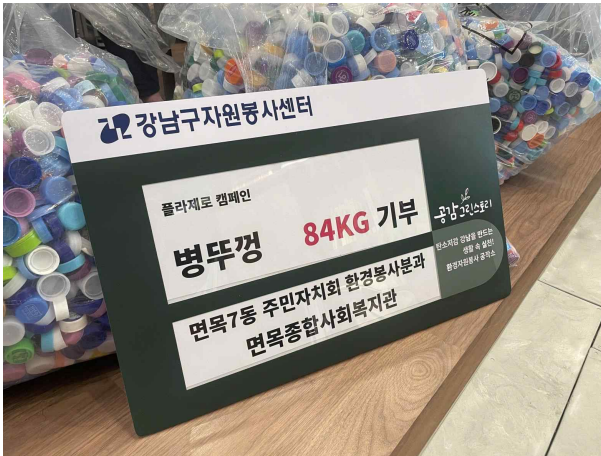
“신뢰 농가와 연계해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네.”

이 시간을 통해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느냐,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나 자

신, 그리고 우리 마을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을 경험하다

면목7동 지역주민과 함께 플라스틱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오거리공원, 면목7동주민센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총 3곳에서 많은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6개월간 총 84kg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병뚜껑을 모았습니다.



84kg은 단순히 병뚜껑의 무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자 면목 7동이 더 맑고 푸른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 경로당 분리배출 캠페인

면목7동에 총 11곳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며 분리수거함을 전달하고 일상에서 헛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택배 상자에 테이프는 뜯어서 버려야지!”

“아~ 찢을은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안 되는구나!”

경로당, 그리고 어르신 가정에서도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1년간 환경봉사분과와 함께한 마을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에서 협력하기

‘이음가게’ 인터뷰

박민아

함께한 사람들



면목7동 이음가게 19개점 사장님

시루원떡집, 면목생활용품전문점, 쌍둥이반찬, 대성정육점, 형제수산, 아플로헤어, 독일베이커리, 조은꽃아이스크림, 이모네식당, 명궁떡집, 경신쌀상회, 오거리정육점, 현대지물포, 주꾸미부대, 수제생닭꼬치닭강정, 담양축산, 간지네과일야채, 엄마손반찬, 솜데이공방

안녕하세요! 이음가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음가게 사장님’은 모든 이음가게 사장님들이 늘 안녕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스케치북 인터뷰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이음가게 1호점이 생기고 2호점, 3호점이 이어 생기면서 지금은 면목7동에 총 19곳의 이음가게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음가게 몇 호점인지 또는 가게 최고 인기 아이템은 무엇인지 묻는 아이스브레이킹 퀴즈부터 복지관과 함께하게 된 계기, 좋았던 점이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 참여하면서 고민되었던 점, 앞으로 같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음가게로서 작은 것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관심, 복지관과 사회복지사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 만남이 큰 행운이에요

떡집을 운영하면서 마을에 관심이 많아서 통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복지관 생활지원사 선생님을 만나 어르신들에게 떡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떡을 받았던 어르신들이 가게에 찾아오셔서 직접 쏘면 떡과 뜨개 가방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서로 얼굴 보며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을 만나서 뜻깊은 일을 하게 되고 만남이 큰 행운이에요!

| 동네 소식통이 되어줄게요

우리 정육점은 면목시장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기 앞에 홍보지를 두면 손님들이 관심 가지고 봐요. 복지관에서 축제도 열고 아이들이랑 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오거리공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고민되었던 일도 복지관 사회복지사랑 상담하고 나서 도움 되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죠. 언제든지 소문낼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 시장에 현수막 한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찾는다고? 그럼, 시장에 현수막 한번 달아 봐~ 시장 상품권 안내하는 저 위치 있잖아. 내 생각에는 저기가 최고야~ 잘 알려야 하잖아.

| 아이들이 뽕뽕 다녀~ 같이 눈여겨봅시다

닭강정 팔다 보면 이 옆이 공원이랑 주택가를 잇는 통로라서 아이들을 자주 보지. 근데 여기가 살짝 경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킥보드를 타고 그렇게 뽕뽕 다녀. 아이들은 재밌고 말고~ 근데 시장 오가는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라도 해봐. 나도 장사하면서 유심히 보는데 복지사들이 아이들 많이 만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위험하다고 잘 알려줘요~

| 복지사들과 자주 만나서 좋아요

복지관과 같이 해보고 싶은 것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복지관 선생님들이 자주 보여요. 동네에서 복지사들이 자주 보인다는 것은 결국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주민과 호흡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무슨 소리가 나길래 공원 쪽으로 나가보니 펠트병으로 어르신들이랑 체조하고 계시더라구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나온 이후로 공원이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했어요. 내가 사는 동네이고 삶의 터전인데 같이 관심 가지며 우리가 만들어가야죠!

면목3



까치공원



면동초등학교

녹색병원

3·8동 주민센터



사가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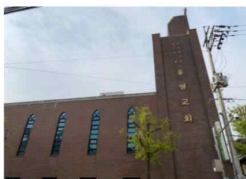


까치공원 상점일대



사가정 시장&복지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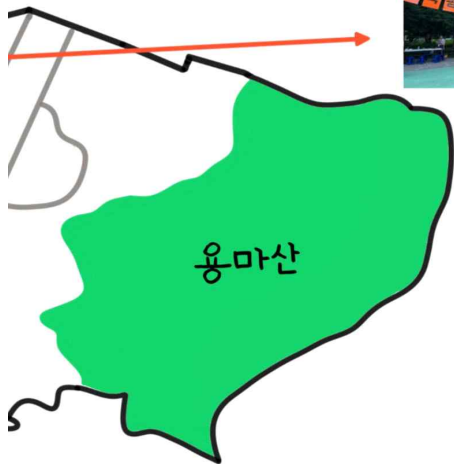
8동



동명교회



소파공원



용마산

학교 협력

아동 모임

다음 장에서는 요리활동과 캠페인을 매개로 마을 안에서
아동이 성장하는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면목3·8동에서는 아동의 주도적인 활동을 거들기 위해
학교와 협력했습니다.

면동초 아동의 마을활동

빛나는 10대 Sunny10

문효성

함께한 사람들



처음과 다르게 적극적인 반전 매력을 보인 강산들 아동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김다빈 아동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김슬아 아동
다양하게 사고하는 문제적 남자 김이준 아동
마지막까지 가장 성실히 참여했던 김하나 아동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왕이 될 상을 받은 이혁진 아동
면동초의 에이스 of 에이스 장주아 아동
주변을 밝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 정현준 아동
선생님보다 먼저 오는 프로참석러 홍성호 아동

아동이 마을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 우리 아이들이 마을을 잘 몰라요.

“아이들이 마을을 잘 몰라요. 매일 가던 곳만 가고... 우리 아이들과 마을활동을 해보는 건 어때요? 마을도 배우고 새로운 곳도 다니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재작년 면동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선생님이 복지3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면동초 아동들과 함께 하는 마을활동,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마을활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동들이 관심 있을 만한 마을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남녀노소 좋아하는 요리 활동은 어때요?!”

“요리도 그냥 만들어 먹기보다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드리면서 함께 정을 나누는 건 어떨까?”

“11월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도 있으니 아동들이 직접 캠페인도 진행하고 만들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면동초 아동들과 재밌게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술술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동의 마을활동에 잘 어울리는 이름도 정해봤습니다. 어린이 마을 활동가 빛나는 10대 ‘Sunny10’

이렇게 아동과 마을이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하다 보니 가장 먼저 마을의 터줏대감인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면목 3·8동의 마을 어르신은 누가 있을까?’ 고민 끝에 생각난 어르신들은 바로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면목3·8동 건강돌봄 모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건강돌봄 모임 어르신들을 만나는 날은 목요일 오전,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아동들을 만나는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인연처럼 어르신들의 하루를 아동들과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 기꺼이 마음을 내어준 마을 어르신

“똑똑똑 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관에서 왔어요. 전 면목3·8동 담당으로 새로 온 문효성 사회복지사...”

“우리 옆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요즘 아동들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혹시 초등학생들과..”

열심히 건강돌봄 모임 어르신들에게 설명해봅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잘 왔어. 그래서 날짜가 언제라고?”

“알겠어. 10월 12일 목요일? 까먹을 수도 있으니가 종이에 적어주기만 해.”

물론 담당자로서 충분히 안내는 드렸지만,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은 흔쾌히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 면동초 아동이 마을의 어르신을 처음 만나다!

첫 번째 회기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나기 전, 먼저 아동과 담당자가 친해지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 어색함도 있었지만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게임도 하고, 준비한 카테고리 안에서 아동들이 하고 싶은 마을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첫 회기가 끝나고 두 번째 회기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캠페인 때 참여한 주민들에게 줄 선물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거야. 그런데 혼자 만드는 것보다 둘이 만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함께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면동초등학교 4학년 ○○○이에요.”

그렇게 모듈별로 앉아 서로 소개하고 면동초 아동들과 건강돌봄 어르신들이 함께 비누와 커피박 키링을 만들어봅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보기에 생각만큼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종이컵이 찢어졌어요.”

“비누가 자꾸 파괴돼요.”

“선생님 제 키링만 모양이 이상해요.”



아동들이 어려워하자 어르신들이 도와줍니다.

“잠깐 쥐 봐. 요건 오래 천천히 주물러야 모양이 예뻐.”

“처음엔 동그략게 더 동그략게 만들어야 해”

캠페인에서 사용할 선물을 만드는 활동이었지만 진행될수록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서로 가까워집니다. 함께 사진도 찍어보고 알록달록한 키링을 만드니 아동들도 열심히 따라와줍니다. 그렇게 아동과 어르신은 3번의 활동을 함께 하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합니다.

아동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 마을이 살폈던 아동, 이번에는 마을에 알리는 아동

‘연락하지 않아도 놀이터에 가면 볼 수 있는 친구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아이처럼 관심 주는 앞집·옆집 사람들, 새해가 오면 현관문을 열고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아동은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들은 인사하기, 신호등 건너기, 장소 찾아가기, 심부름하고 잔돈 거슬러오기 등 정겨운 일상 속에서 기특한 부분에는 마을의 따뜻한 칭찬을, 모난 부분에는 마을의 정을 맞으며 함께 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이 살폈던 아동들이 마을에 아동을 알려보기로 했습니다.

| 아동이 만들어가는 아동 권리와 책임 캠페인

“얘들아 가끔 지나가다 보면 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잖아. 캠페인을 왜 하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에는 같이 마을 캠페인을 준비할 거야.”

아동들과 캠페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렇게 캠페인 준비를 위해 정보 조와 퀴즈 조로 나눕니다.

“조는 하고 싶은 조가 각자 있을 수 있으니 공평하게 사다리타기로 정하는건 어때? 선생님도 같이 할게.” 그렇게 모두가 재밌게 조를 정해봅니다.



조도 나뉘었으니 본격적으로 아동들이 캠페인을 준비해봅니다. 검색도 해보고 직접 퀴즈도 만들어봅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지만 각자 만든 퀴즈는 다 다릅니다. 아동들은 만들면서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서로 웃으며 만들다 보니 금세 많은 O.X와 객관식 퀴즈들을 만듭니다.



Q) 지켜야 할 아동의 대표적인 권리는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 여권이 있습니까? (O, X)

정답은 X, 여권이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Q)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동도 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① 성인의 권리 ② 중당의 권리 ③ 고당의 권리 ④ 아동의 권리.

답은 4번, 아동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서로 만든 퀴즈들로 선물을 걸고 대결을 해봅니다. 난이도가 ‘하’인 퀴즈부터 ‘상’인 어려운 퀴즈까지 풀어보며 서로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서로의 퀴즈를 맞추기 위해 혹은 선물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들의 모습에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 마을에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서 연습해보기



캠페인을 앞두고 우리가 찾은 정보와 퀴즈들을 마을에 알려주기 위해서 꾸며봅니다. “주민분들이 오면 선생님은 옆에서 안내하고 설명은 너희들이 할 거야.” 하고 역할을 구분하고 힘을 넣어주니 아동들이 스스로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퀴즈 조 ○○○, ○○○ 입니다!” 종이에 직접 적어서 연습해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함께 구호를 만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캠페인에서 정보와 퀴즈만으로는 아쉬우니 체험할 수 있는 거리도 준비해봅니다. 직접 아동들의 책임과 다짐을 현수막에 적어보고, 사탕 상자에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적어봅니다.

| 면동초 아동이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드디어 찾아온 캠페인 당일, 캠페인은 정보와 퀴즈, 체험부스로 준비했습니다. 체험부스에는 아동이 준비한 체험부스 외에도 서일대 학생들이 준비한 캐리커처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추운 날씨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아동, 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온 아이들 등 삼삼오오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보 조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퀴즈 조 〇〇〇, 〇〇〇 입니다! 퀴즈를 5문제 낼건데 3 문제 이상 맞히지 못하면 상품은 없어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사탕 상자를 만들어봐요.”

아동들은 각자의 생각을 담아 직접 준비한 캠페인을 주민들 앞에서 설명해봅니다. 아동들은 주민들 앞에서 진행되는 경험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찾아온 주민들은 아동이 준비한 캠페인을 참여하며 배워봅니다.

붉은 단풍이 찾아오고 떨어지기도 한 차디찬 11월의 날씨가 잠깐이지만 아동들의 익살맞은 목소리에 생기있고 밝은 마을공원의 분위기로 변화됩니다.



아동들이 열심히 준비한 캠페인을 공원에 찾아온 주민들 외에도 마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오래 오래 사시라고 제가 직접 만든 거북이 모양 키링 드릴게요!”

“이 비누 이태리에서 만든 천만원짜인데 사장님한테 특별히 드릴게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이겼으니 예쁜 비누 드리고 사장님은 지셨으니까 조금 덜 예쁘지만 실용적인 비누 드릴게요”

아동들은 직접 마을의 사장님들에게 퀴즈도 내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귀여운 설명 덕에 사장님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사장님들도 찾아온 아동들에게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은 아동들도 웃으며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마음을 내어준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 아동들이 어떤 요리를 만들지 함께 정해보는 시간

“우리 이번에는 먹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먹을 거야.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싶어?”

아동들과 어떤 요리를 만들지 함께 정해봅니다. 아동들은 “랍스타요! 스테이크요! 고기 구워 먹을래요.”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두 번의 활동에서 만들 메뉴를 정하고자 “그런데 메뉴에 조건이 있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처음에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건강돌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을 거야.” 라고 말하니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먼저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탄산보다 식혜가 좋지 않을까요?”

“떡볶이 만들어서 먹고 싶어요.”

“제가 감바스를 잘 만들어요. 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메뉴를 함께 정하고 나니 어떤 재료를 사야 할지,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역할은 어떻게 나눌지 등 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이 먼저 의견을 내니 술술 풀립니다.

“선생님 제가 재료 손질할게요.”

“양념이랑 요리는 제가 할래요”

“전 서빙과 웨이터 할래요.”

끝나는 시간에 지났음에도 집에 가지 않고 열띤 논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듣던 아동들이 이제는 남아서 먼저 의견을 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사회복지사마저 즐겁게 준비합니다.

| 아동들이 마을에서 직접 장을 보다!

메뉴를 정한 후 아동들이 직접 재료 조사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들이 조사한 재료를 구매하러 떠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구매할 재료를 아동이 직접 정리해서 올립니다.
장난스럽게 장도 봤지만 사야 할 재료는 빠지지 않고 구매합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추가로 넣고 싶은 재료들도 선생님에게 몰래 와서
귀엽게 허락받고 넣기도 합니다.

| 이번엔 아동이 마을 어르신에게 마음을 전하다!

어르신들에게 요리를 전하는 대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동들은
어르신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모였습니다.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지만 참여하지 못한 아동은 없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듣고 바로 요리를 진행합니다.

각자 준비한 역할대로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든 요리는 파스타와 감바스입니다. 처음 만드는 요리다 보니 쉽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요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자 어르신들이 오순도순 들어옵니다. 눈이 많이 왔지만 어르신들 중 참여하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웨이터와 서빙을 맡은 아동이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요리를 만듭니다.

늦게 만들었지만 열심히 만든 요리를 함께 먹으며 오랜만에 만나 정다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리는 1시간, 먹는 건 20분, 정리는 또 1시간..”



두 번째 날에는 아동들이 떡볶이와 김밥을 준비해 봅니다. 아동들이 간을 보며 물이랑 양념을 더 넣기도 하고, 편하게 설거지하도록 기름기 있는 도구들은 따로 분리하기도 하고, 소세지에 칼집도 내는 등 점점 능숙하게 요리를 만듭니다.



“양념은 이만큼이면 되겠죠?”

“같이 먹게 만두도 구울래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오시기 전 요리를 완성합니다. 지난 파스타와 감바스를 만든 날은 늦게 만들어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은 덕분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동들에게 받기만 하기 미안하다고 어르신들이 먼저 “우리가 아동들한테 간식이라도 사줘도 될까?”라며 말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은 아동들 몰래 서프라이즈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프라이즈 간식으로 준비한 탕후루를 아동들에게 주며 덕담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 밥 먹을 때 조용하기도 하고 끼니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 덕분에 여기 와서 너무 너무 잘 먹

있고 고마워. 우리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나라에서도 아주 아주 큰 사람이 되길 바랄게.”

아동들에게 혹시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자 아동이 손을 들며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Thank you, Grand mother”라며 크게 외쳤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두 문장이 마음을 울립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들이 많아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노력한 아동들 덕분에 따스한 빛이 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며 몸은 추웠던 12~1월, 면동초등학교 Sunny10 아동들 덕분에 마음에는 따뜻한 눈이 내립니다.

지역 축제

면목3·8동 소파공원 어르신들은
건강체조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일궈갔던 과정을 소개합니다.

소파공원 할머니와 함께하는

추억잔치

강예정

함께한 사람들



소파공원의 든든한 왕 할머니 **윤행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이름마저 예쁜 꽃자 할머니 **이화자**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초코 할머니 **이명자**
아이와 어른 모두 챙겨주시는 마음 넓은 영원한 통장님 **한오순**
못해~해도 다 참여해주시는 개똥이 할머니 **강순자**
우리 가락을 신명나게 알려주신 **채대원**
동명교회 부목사님, 권사님3명, 장로님3명
실습생 김소은, 송현지, 최윤아
면반장 김희태, 김창수, 권상식
면동초&열면친구들 유지연
공공복지 서포터즈 김정옥

이번 소파공원 여름축제는 어르신과 함께!

| 소파공원 어르신의 가능성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을 때 소파공원 어르신 건강체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기 전 막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부터 그 간의 소파공원에 있었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마을 활동을 소파공원에서 시작한 것, 여름축제로 소파랜드를 진행한 것, 소파공원에서 욕구조사를 진행한 것, 건강체조 모임이 이루어진 것,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신 것 등을 이야기 해주었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마디가 인상에 깊었습니다.

“소파공원 어르신하고 건강체조를 진행하는데요. 어르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뭘 같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들을 처음 뵈었습니다. 건강체조모임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은 점심 먹고 산책 겸 소파공원 정자에 모여 서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챙겨주는 모습에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통장님이었던 한 어르신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자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민원도 넣고, 워낙에 주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안내와 소통의 역할을 해주었

습니다. 건강체조를 마치고 간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뜨거운 물과 믹스커피를 가지고 봉사자와 사회복지사에게 한 잔씩 마시라고 건넸습니다.

‘여기는 마을 안에 이미 관계가 있구나. 어르신과 뭔가를 시도하면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과 얼른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간여행을 통해 알게 된 추억 이야기

매주 어르신과 마을 활동을 마치고 자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체조만 하고 가는 어르신도 있었고,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는데 몇 몇 어르신만 이야기하다 보니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여행 카드를 매개로 옛 추억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었고, 카드 속에 담긴 추억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도 경청하며 “그랬어?”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팀장님께서 제안했습니다.

“어르신이랑 옛날 추억 놀이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해본 활동이니 잘 할 것이고, 어르신이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소파공원 놀이터에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면 어르신도 아동도 서로 알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활동을 실습생과 같이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 저희 공부하러 왔어요.

하계실습생이 들어오고 소파공원 어르신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은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실습생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대요. 시간 괜찮으시죠?”

실습생 3명이 어르신 2~3명씩 말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 본 실습생이었지만 공부하겠다고 온 실습생에게 곧 잘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들으며 어르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기 전 실습생들에게 ‘어르신 강점 3가지 찾기’ 미션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간 사회복지사도 알지 못했던 강점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르신이 즐겨하던 놀이 실뜨기와 뽕뽕이, 고무줄놀이, 대나무 부채, 감자범벅, 다듬돌, 창포물에 머리 감기, 치자 염색하기 등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활동이 나왔습니다. 강점을 이야기하다 보니 활동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어르신에게 추억과 경험이 담긴 활동으로 축제를 진행해 보면 어떤지 여쭙었습니다. 몇 명 어르신은 함께한다고 쉽게 말했지만 “나는 못해~ 난 구경만 할게”라며 거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더 강요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부탁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 지역사회 내 함께 할 주민 찾기

소파공원 여름 축제를 준비하면서 더 풍성한 축제를 상상하며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동명교회였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동명교회에 들려 축제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미꾸라지 잡기 어때요? 달란트 시장처럼 미꾸라지 잡고 감자나 옥수수 상품으로 주면 좋을 거 같네요.”

동명교회 목사님께서 빅 이벤트가 될 만한 활동을 제안해주었습니다. 미꾸라지, 감자, 옥수수, 천막도 동명교회에서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함께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감사했습니다.

면반장 모임에도 제안하였습니다. 과일 카빙의 자격증이 있으신 김희태 반장님은 역시 재능을 활용하여 한쪽에서는 과일 카빙을 뽑내 주시기로 하였고, 다른 반장님들은 과일화채를 만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열면친구들 아동과 공공복지 서포터즈 선생님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더 풍성한 축제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 숨어버린 어르신

연일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때문에 모임 약속을 정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르신과 논의할 시간이 없어 실습생의 마음도 우중충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연락드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창포물로 머리 감기는 본인도 한 적이 없고 옛날 우리 엄마 시절에 했던 거라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습생이 어르신과 논의하며 축제를 만들어가던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요리에 강점이 있었던 한 어르신께서 “참여를 못하겠어” 라는 말만 남기고 모든 연락을 받

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둘 다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진행보다 어르신의 마음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만나주시질 않았습니니다. 다른 어르신이 “우리가 잘 말해볼게” 라며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르신이 혼자 100인분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셨다고 합니다. 또 장마가 연일 이어져 집에 물이 섰고, 이로 인해서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삶이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묻고, 듣고, 의논하여 어르신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즐겁게 참여했으면 바램과 주체성을 가지고 진행하여 성공 경험을 드리려고 했던 건 어찌면 사회복지사의 욕심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송했습니다. 천천히 어르신과 함께 하지 못한 것, 불편한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니다. 어르신에게 더 이상 부담 드리지 않았고, 어르신이 편안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르신도 부담을 느끼는지 확인하고 부담 느끼지 않을 쉬운 활동으로 어르신에게 부탁드렸습니다.

| 그럼에도 다시 해보자!

한 어르신이 빠지게 되면서 활동 하나를 대체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을 찾아야 되는데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마침 제조에서 처음 오신 이명자 어르신께 급하게 축제를 안내하고

함께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알려주면 다 도와줄게~" 하시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부탁을 드려 당황하실 법한데 호탕하게 승낙하신 어르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마을에 오신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소파공원에 초코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왔다가 체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요리 활동은 어려웠지만 봉숭아 물들이기는 알고 계셔서 급하게 활동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실습생을 위해 치자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시고, 단추와 실을 가져와 뽕뽕이와 실뜨기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적극적인 모습에 기뻛고, 든든했습니다.



“뽕뽕 소리가 나쥬? 재미있쥬? 이거 하면 스킬 넘쳐~!!”
정말 뽕뽕 소리가 났습니다. 팀장님도 옆에서 하시면서 “재미있

네~!!” 옛날엔 줄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본을 보여드리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 어르신이 돼지감자전을 간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짹~짹~하지?” 어르신들이 챙겨주신 간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자! 저희 이제 내일 축제입니다! 손 모아서 파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한 하루

| 꽃자 할머니, 개똥이 할머니, 왕 할머니~

축제 날 무지 더웠습니다. 어르신도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였고, 혹여나 쓰러지실까봐 그늘에서 쉬시도록 했습니다. 동명교회 부목사님과 집사, 장로님이 먼저 도와주신 덕분에 천막도 치고, 가림막도 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쉽게 작성한 대본을 어제도 연습했지만 오늘도 또 연습해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 재미나게 소개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별칭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할머니로 불리고 싶어요?”

“음...나는 꽃자 할머니 해야지”

“언니는 왕할머니 해요.”

“나는 개똥이 할머니 할래.”

가지 각색으로 어르신이 불리고 싶은 별명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재미난 소개이자, 인상에 남는 소개였습니다.



한오순 어르신과 윤행례 어르신은 실뜨기와 실팽이를 맡아서 진행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오순 어르신이 일등이었 습니다.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어르신은 “OO야~ 이리 와봐~ 재미난 거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보다 더 신나게! 노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든 기색 없이 뽕뽕 하셔서 놀랐습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가장 늦게 참여했지만 여느 어르신과 같이 잘 진행해주셨습니다. 봉숭아 물들이기를 혼자서 진행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며 봉숭아물을 들여 주었고, 고무줄을 세계 묶어서 아이가 아파하자 집에서 실도 가져오셨습니다. 또, 집에서 시원한 얼음물과 선풍기도 가져오는 적극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잠깐 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에 “모르는 동네에 와서 걱정되었는데, 좋은 분들과 잘 지내는구나~”라며 손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와주신 손길이 많습니다.

수박씨 멀리 뺏기와 수박화채 나눔을 진행해준 면반장,
통통한 미꾸라지를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감자와 옥수수를 썰은
동명교회 권사님과 장로님,

참여한 아동에게 참여 방법을 알려주며 도장판을 나눠준 열면친구
들 유지연 아동,

더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켜준 김정옥 공공복지 서포
터즈 선생님 등...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었기에 풍성한 축제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은 채대원 어르신의 장구가락에 맞춰 모두 다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 모두 손 잡고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처음 보더라도 손을 잡고 함께 염원을 모았습니다.

“소파공원 행복하세~ 강강 수월래”

“우리 모두 건강하세~ 강강 수월래”

소파공원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모두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은 공통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 한산하던 소파 공원이 이번 잔치로 복적여서 정겨웠고 덕분에 소파 공원 주민들이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잔치가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더 큰 잔치를 벌이고 싶어요.”

“집 안의 환자만 모시고 살다가 이런 외부 활동 기회를 통해 친구도 사귀고, 어색하기만 했던 소파 공원이 좋아졌습니다.”

“새로 알게 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원래 알던 아이와는 더 반갑게 인사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어.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놀랐고, 정말 잘했어~”

추억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어르신이 이렇게나 행복해하시고 뜻깊게 생각하신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한 결과 어르신이 더 즐거워하셨고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산하고 서먹했던 소파 공원이 추억잔치를 통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습생의 마지막 활동임을 이야기하자 어르신들은 께안아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학생들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르신 사랑해요”

실습생은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오고감 속에 ‘이것이 바로 마을 활동이지~!’ 라는 훈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역에서 협력하기

이여지는 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겪은
총 5개의 에피소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면목3·8동에서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센터, 사가정 시장 상인회, 이음가게, 까치공원 인근 상점과
다양한 마을활동을 매개로 협력했습니다.

사가정 시장과 함께하는

복지상담소

안예지

함께한 사람들



시장을 위해 가장 먼저 발로 뛰는 **윤재길 회장님**

방문 때마다 요구르트 하나씩 내어주시는 **박주성 수석총무님**

조용하게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박용석 매니저님**

항상 따스게 맞아주시는 **대원이불 사장님**

복지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복지상담소로 오세요!

| 사가정시장과 함께하는 이유

복지3팀은 복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 안에서, 더 가까이서 만나고자 했습니다.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거점장소를 탐색하다 사가정시장을 찾았습니다.

사가정역 1번 출구 길 건너 맞은 편, 새마을금고 건물 옆쪽 작은 골목에 사가정시장이 있습니다. 세련되기보다 예전의 간판과 가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느 대형시장보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사가정시장은 이음가게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음가게로 만나고 인사를 드리며 소통을 해오다 21년 가을에는 상인회와 한가위 이벤트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복지관과 함께 한 행사가 좋은 기억에 남았는지 총무님은 팀원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같이 안 하냐고 종종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이번이 사가정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력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걱정과 달리 호의적인 반응

실은 2022년에도 사가정시장상인회 사무실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의를 했었으나 여러 상황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번에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석총무님을 찾고 저희의 취지를 설명하고 복지상담소 운영 의지를 전했습니다.

“어유, 좋죠. 내가 얘기해둘게. 걱정 말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총무님은 저희 제안을 반겼습니다. 상인회장님에게 잘 얘기해들테니 본인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총무님의 호언장담대로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 지역과 시장을 위한 상생

회장님을 만나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가정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회장님은 면목3·8동과 사가정시장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나는 우리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관이 함께 해주면 좋죠.”

그렇게 상인회 사무실의 한 공간을 사용하라며 내어주셨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협력하게 될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매니저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인회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시장도 지역에서 상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वाद도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시장은 단순 영리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위한 실천을 위해 서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주민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복지상담소

복지상담소를 찾은 첫 손님은 고시원에 사는 서OO님이었습니다. 고시원 내 상담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던 서OO님은 복지상담소에서 일자리 정보도 얻고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복지상담소에서 여러 주민을 만났습니다. 다른 고시원 이용자들을 비롯해 문해력이 낮아 집으로 온 우편물을 들고 오는 중년의 아버님, 퇴근길에 고민이 있어 들리는 한부모가정 어머니 등 여러 이유로 복지상담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생겼습니다.

"혹시 혼자 사는 노인도 소개해줘도 될런가?"

어느 날은 회장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분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을 만나 상담을 한 후 혼자 사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그동안 복지상담소를 진행했던 내용을 담아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 임원분들께 감사 편지를 적어 전달했습니다. 구인공고나 임대주택 등 필요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주거비 신청, 긴급지원 연계, 수급 신청 안내 등 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구만."

편지를 받은 회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매니저를 통해 얘기하라며 든든한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 사가정시장 일상이 된 복지상담소

복지상담소는 어느덧 사가정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건물 앞으로 갈 때마다 인사드리는 한희순 사장님은 눈웃음과 함께 오늘도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거 내가 옮겨줄게. 복지사 선생은 그냥 올라가요."

복지상담소 시작을 알리는 배너를 현관 앞으로 옮기려는 저를 보고는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가오십니다. 성함도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저 복지관에서 온 사회복지사를 도와주는 손길에 감사 인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담 도중에 찾아온 주민을 제가 미처 응대하지 못하면 매니저님이 대신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 온도도 낮춰주고, 시원한 음료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그래, 안 주임 수고했어요."

무심한 말투로 회장님도 이제 상담을 마치고 인사를 드릴 때마다 미소로 받아주십니다.

| 앞으로도 이어질 협력

외부매체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간 사가정시장 소개 영상에서 복지상담소가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시장이 면목복지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본인에게 얘기해주면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게끔 연결해주겠다는 매니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야지. 잘 부탁해요.”

이제는 시장 내 복지상담소 운영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한 사가정시장과 복지관의 협력,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면목 3·8동 주민센터와 함께한
고시원 반찬 나눔

윤석호

함께한 사람들



민-관협력 파트너 면목3·8동주민센터 연미숙 주무관
무엇이든 똑딱 똑딱 요리 장인! 요리 금손! 이순희 봉사자
“내가 좋아서 하는거지 뭐~” 열정 최고! 차점순 봉사자
노래면 노래! 봉사면 봉사! 만능 재주꾼! 박희선 봉사자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우직한 아트빌림고시원 원장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애교만점 우리고시원 원장

주민센터와 ‘발맞춰 걷기’

| 새로운 주무관

“민관 협력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뜨끔 들면서 새로 바뀐 주무관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만난 주무관과 그동안 복지협의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히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어나갔습니다. 주무관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은 “면목 3·8동 주민에게 필요한 거라면 같이 해보죠”였습니다. 이런 태도와 에너지라면 ‘민관 협력’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첫 단추

면목 3·8동은 면목 본동 다음으로 고시원이 많습니다. 중장년 고립 가구 다수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주저 없이 중장년 고립 가구, 특히 고시원을 이용하는 분께 건강한 반찬을 챙겨드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왕이면 반찬가게에서 사서 드리지 말고 주민이 주민을 챙기는 방식으로 직접 만드는

활동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고시원 원장님의 협조도 필요했고, 반찬을 함께 만들 주민도 찾아야 했습니다. 고시원 원장님이 봉사자로서 반찬까지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무관과 함께 여러 고시원 일곱 군데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고시원 원장님은 밥과 김치만 제공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개의 고시원이 희망했고 그중 원장님 2명은 봉사활동까지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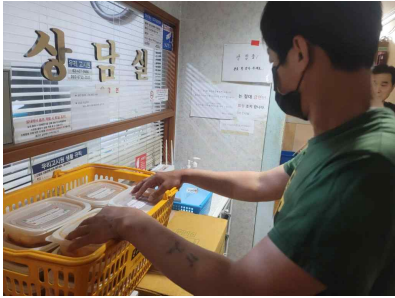


| 함께하는 즐거움

오늘도 역시 푹푹푹, 예상 시간보다 일찍 100인분 제육볶음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반찬 봉사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 3명과 고시원 원장님 2명입니다. 큰 식당을 운영했던 대장 언니를 필두로 음식 포장을 시작할 때면 주민센터에는 맛있는 간식을 들고 찾아옴

니다. 쿼른 땀방울이 시원한 아이스크림 덕분에 달아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다 모이셨네요?” 5명의 주민 봉사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정하지 않아도 되니, 속은 편한데 내년에도 계속하려나?” 마음 한편으로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아쉬움만큼이나 감사한 것은 100인분이나 되는 많은 양을 하는데,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콧노래 부르며 즐겁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늘 때에 맞춰 간식거리 사 들고 인사하러 오는 주무관 역시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도구가 없으면 언제든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주민센터의 의지가 있었기에 뜻깊은 반찬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너무 앞서지도, 주저하지도 않게

뜻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 제대로 민관이 협력해 보고 싶다는 첫 마음과 그간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살려 이용자를 도울지, 또 봉사 참여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나눌지 자주 만나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반찬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찬을 드리고 받는 입장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직접 드리면 이용자는 과연 편하게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차라리 고시원 원장님을 통해 드리는 방식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여 반찬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이 힘들고 어렵지 여러 번 방문하여 인사 나누니 점차 고시원 이용자와 인사 나눌 수 있었고, 반찬을 주제로 시작한 이야기는 일상으로 확장되고 삶의 고단함까지 깊이 있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식의 고민도 있지만, 짐짓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머뭇거리던 그때 방문을 두드리고 밝게 인사하는 주무관의 모습에서 또 하나를 배웁니다.

민관 협력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가 처한 업무환경이 다르기에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 설레고 부푼 마음에 앞서나가거나 건너뛰고 얘기할 때면 여지없이 다름을 확인하고 발맞춰 가야 함을 느낍니다. 같은 조직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인데 더구나 조직이 다르기에 이제는 앞서나가거나 느리게 가지는 않는지 서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이 복지관에 인사하러 왔던 때가 기억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제 파트너예요. 제가 내년에 옹기면, 이 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해서 같이 왔어요” 민관 협력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지속성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 함께 왔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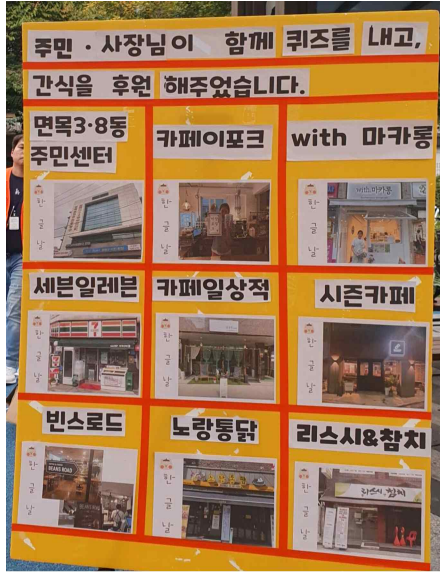
내년에도 누가 되든, 민관 협력 잘해보고 싶습니다.

사가정시장 & 까치공원 인근 상점

이음가게 이어가기

강예정

함께한 사람들



면목3·8동 이음가게 18개점 사장님

소문난 칼국수, 대박순대국, 여천상회, 대원이불, 다모포차, 수정상회(계란, 닭집), 하림닭(치킨), 전주식당, 여기가 좋겠네, 덕이네반찬, 형제야채, 그랑데뷰호프, 혜준수족관, 먹자도비아, 손두부마을, 낙원떡집, 아방스데코침구, 안방다방

면목3·8동 까치공원 지역상점

노랑통닭, 시즌카페, 세븐일레븐, 빈스로드, 위드마카롱, 카페 일상적, 리스시앤참치, 이포크카페

사가정 시장에서 까치공원까지

| 애정이 담긴 사가정 시장 이음가게

실습생과 처음으로 발굴한 이음가게들을 잊지 못합니다. 어렵게 말을 걸며 관계를 맺고, 이음가게를 함께하겠다는 말을 듣기까지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발굴된 이음가게와 마을활동을 몇 번 진행하였지만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을 때 새로운 마을활동을 이어가느라 이음가게와의 관계는 소홀해졌습니다. 이음가게 발굴이 힘들었던 걸 알기에 관계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상담소까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음가게를 다시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직 전 “사장님~ 저 애기 낳으러 가요~” 라고 인사했으니, “저 복직했어요.” 인사하기에 구실로 적합했습니다.

| 어떻게 확인할까?

이음가게 사장님들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팀에서 논의 했습니다.

이음가게를 알고 계신지, 어떤 활동을 계속 해주실 수 있는지, 활동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음가게 지속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하고 오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동안 감사함을 이야기하며 종결하는 방법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음가게의 역할은 마을에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기, 복지정보를 홍보하기, 나눔활동에 참여하기 등입니다. 상점별로 어떤 활동이 부담없이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나중에 수월히 부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지 4팀에서 진행하는 구순팔순 잔치에 면목 3·8동 이음가게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이 활동도 제안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감사로 이어진 끝맺음

하루에 5곳을 방문하자는 목표를 정해놓고 사장님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며 사장님들과 현재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며 사장님들과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음가게를 잘 알고 있는 사장님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이음가게가 무엇인지 역할은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몇 몇 가게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나눔활동에 참여의지를 확인하며 구순

팔순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장님이 바뀌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이음가게는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여력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돕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점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종결했습니다. 언젠든 복지관이 마을 활동을 하니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연락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감사드리고 좋은 관계로 종결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음가게를 계속 이어가는 것만큼 상황에 따라 잠시 중단, 종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 먼저 제안해주신 사장님

면목 3·8동 이음가게는 사가정 시장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가정 시장은 까치공원과 거리가 멀어서 함께 무언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진행했던 할로윈 축제를 까치공원 인근 가게들과 협력해서 진행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하기에는 까치공원만한 곳이 없습니다. 까치공원 인근에도 이음가게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작년에 함께 했던 가게들도 인사해볼까?”

팀장님의 제안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다녀보았습니다.

“네네, 기억나죠”

오래간만에 인사를 하니 적잖히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이기도 했지만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게에서 들려준 반가운 제안.

“작년에 아이들 와서 진행했던 거 또 안해요?”

또 하고 싶으신 마음이 감사했고 기억해주셨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진행하게 되면 또 방문할게요”

복지 3팀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축제를 매개로 인근 가게랑 다시 협력해 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작년처럼 할로윈 축제를 진행할 수 없어 아름다운 우리말을 생각하고 써볼 수 있는 한글날을 매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이 직접 한글 문제를 내는 걸로 역할을 더 드리는데 어때요?”

“한글로 된 간판도 만들어봐요.”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모이자 재미있는 축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 사장님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한글날 축제에 함께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는 홍보지와 함께 까치공원 인근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께 축제에 대한 내용과 역할을 알려드리고 함께 참여해줄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작년에 할로윈축제를 참여했던 사장님들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사탕을 나눠주는 거지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아이들에게 한글 관련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해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센터, 시즌카페, 세븐일레븐, 빈스로드, 이포크 카페, 워드마카롱, 카페 일상적, 노랑통닭, 리스시앤참치 9곳이 함께 해주십니다.

축제를 계획하면서 자주 들려서 부탁하기를 실천하였습니다. 한글 문제를 출제도 사장님이 고르고 한글날 축제 당일에는 한글 간판도 걸어주시기로 했습니다. 한글 간판 논의 드리면서 가게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한글로 바꾸면 좋은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가게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었어요? 의미가 있나요?”

“커피를 거꾸로 하면 이포크가 되어요.”

“제가 이씨 성이거든요. 그리고 초밥과 참치를 파는 가게라 리스시

안참치로 지었어요..”

“지금은 24시간 열지만 예전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가게 문을 연다는 의미에서 세븐 일레븐이에요.”

가게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니 더 기억에 잘 새겨졌습니다.

“한글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글세...칠십일점빵으로 하면 되려나? 옛날에는 가게를 다 점빵이라고 불렀어.”

“점빵! 좋네요~ 아이들한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어렵지 않죠!”

사장님이 직접 한글 간판도 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정한 한글 간판이니 애정을 갖고 더 잘 걸어주실 것입니다.



| 사장님과 함께 만들어간 축제

올해는 사장님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도 내야 되고, 답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해줘야 되고, 도장도 찍어줘야 합니다. 사장님들께 도장을 나눠드리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문제도 내면서 직접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앞에서 문제도 내면서 사장님들이 잘 진행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축제를 참여하였고, 덕분에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도장을 수거하면서 오늘 마을 활동이 어땠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의 소감을 여쭙었습니다. 사장님들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재미있었던 순간을 떠올리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축제를 일구니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참여해주실 수 있는지 물음에 “그럼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축제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장님께 좋은 기억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활동에 좋은 점들을 잘한 점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마을축제는 단순히 축제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고 축제를 매개로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회복지사,

‘마을과 처음 만나다’

문효성

함께한 사람들



면목3·8동 이음가게 18개점 사장님

소문난 칼국수, 대박순대국, 여천상회, 대원이불, 다모포차, 수정상회(계란, 닭집), 하림닭(치킨), 전주식당, 여기가 좋겠네, 덕이네반찬, 형제야채, 그랑데뷰호프, 혜준수족관, 먹자도비야, 손두부마을, 낙원떡집, 아방스데코침구, 안방다방

사회복지사, 마을을 처음 만난다.

| 면목복지관을 처음 만난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복지관에 출근합니다. 새로 온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의 사업들을 듣고 배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공부는 어려우면 정정당당히 추리력으로 승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와서인지 방금 들었던 정보를 헛갈리기도 합니다. 천천히 다시 천천히 들었던 사업들을 떠올려봅니다. 슬며시 하지만 선명히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찾아오기 어렵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관이 마을로 나가 마을에 가까워지기 위한 사업 면목의 '지역밀착형 사업'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과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하게 된 복지3팀도 여러 방법으로 마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르신을 만나며 건강체조와 정을 나누기도 하고, 학교에서 아동과 축제를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 가서 인사를 나누며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씩 배워보며 다음은 직접 마을로 가보기로 합니다.

| 면목복지관의 면목3·8동 사가정 시장 이야기

면목3·8동에는 마을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가정적이고 온화한 사가정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정 시장에는 마을과 복지관을 이어주기 위해 마음 써주시는 이음가게들이 여럿 있습니다. 양손에 소식지를 들고 함께 시장길을 걸어보며 말을 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소식지도 나왔고 새로 온 사회복지사도 있어서 소개도 할 겸 해서 왔어요.”

가볍게 인사를 드리니 “더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어휴 너무 고생하네.”라며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오고 가는 정다운 이야기 속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사가정 시장 상인회 회장님 사무실에 들어가 봅니다.



“핸드폰 번호 까먹은 줄 알았어. 연락이 없길래.”

“너무 오랜만이네.”

사실 연락도 드리고 목요일마다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낮간지러운 말보다 어색함 없이 반겨주는 회장님만의 표현입니다. 새로 온 사회 복지사로서 회장님에게 소개도 합니다.

“새로 왔다고? 나중에 회장까지 해야지. 아 복지관이니까 관장인가?”

“이따가 사무실 가서 회장 자리에 한 번 앉아봐. 내가 허락했다고 하고.”



각자의 표현은 달랐지만 따뜻한 마음씨는 모두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양손은 빈손이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풍족하게 복지관으로 돌아갑니다. 풍족해진 마음에 나도 모르게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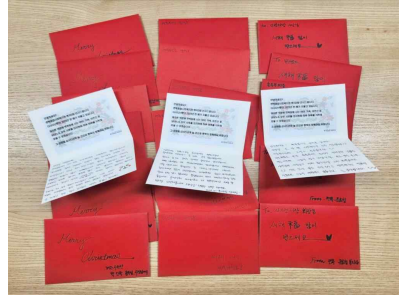
마음을 전하는 감사인사
**‘덕분에 마을이
따뜻합니다’**

윤석호

마음을 전하는 감사 인사 ‘덕분에 마을이 따뜻합니다’

| 감사함을 전하자

달력을 보니 12월도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을 활동 마지막 일정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느끼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연하장, 크리스마스카드, 감사 키트 등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았고形形色색 예쁜 구성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산타가 되어보자!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갖고 가는 거야!’ 들뜬 마음에 팀 동료에게 찾아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동료들도 연말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소한 선물도 좋겠지만 참여한 활동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겨울이니깐 핫팩이나 핫초코같이 따뜻한 것들은 어때요?” 무엇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척척 힘을 보탤했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드릴지,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하니 준비하는 게 신났습니다.



|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카드

며칠이 지나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선물과 감사 카드에 담은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카드에 적힌 내용 밑에 여백이 있으니, 거기에 손글씨를 적으면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아 차마 제안하기 어려웠는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장님께는 제가 할게요, 저랑 추억이 있어요” 저마다 누구에게 카드를 쓸지 먼저 정하느라 바빴습니다. 약 한 시간가량 적는 내내 손가락을 ‘주물주물’ 마사지해가며 적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글씨를 써봐요, 막상 추억을 적어보려니 카드가 너무 작네요” 마음을 글로 적어 내려가니 이런 저런 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큰마음을 담은 선물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 고마운 제안

“가자! 가자~ 다음은 누가 줄래요?” 서둘러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팀장님, 근데 우리 꼭 필요한 질문 몇 가지를 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동료의 제안에 민망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뜻 깊은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였는데,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급급했던 모습이 떠올라 멈칫했습니다. “그, 그래요. 무슨 말을 나눠볼까요?” 사장님들은 보통 미션 수행 이벤트로 참여했기에 복지관은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등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궁금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 혹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2가지만이라도 나누어 의미를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 우리 모두 산타

쇼핑백을 내미는 것 대신 활동에 참여했던 사장님 사진을 보여드리니 말이 쉽게 풀렸습니다. “아니 오늘 손님이 없어 기분이 좀 그랬는데, 결국 산타가 왔네” 기분 좋은 환대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실 복지사 양반들 인사하고 지날 때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중에 시간 되면 물어보고 싶었어요.”라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 후원 등 그간 하지 못했던 내용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서로 귀를 쫓긋 세우고 나눈다는 생각이 들어 귀한 시간을 잘 만들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내친김에 제가 직접 쓴 카드를 펼쳐 낭독도 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마음을 담아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카드를 채 다 읽기 전에 사장님은 저희를 두 팔 벌려 크게 안아주었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는 저희에게 몇 차례 인사해 준 덕분에 뒤돌아 인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감사함을 전하러 간 날인데 여러 사장님으로부터 따뜻함을 흠뻑 받은 날입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라며 서로에게 아끼지 않고 칭찬하였습니다.

어르신 특화사업

다음 장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한 2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면목동의 주민과 단체가 협력하여 팔구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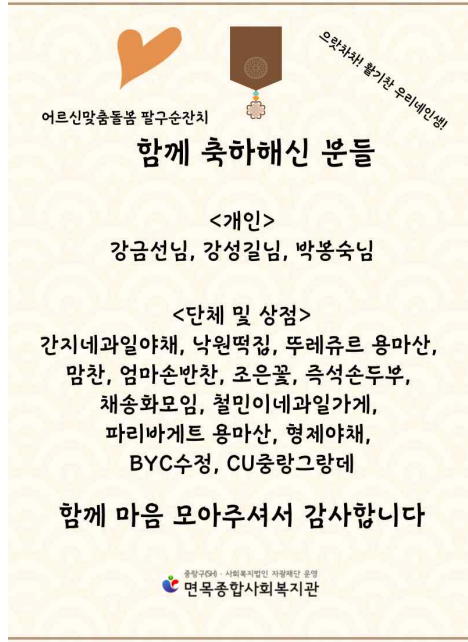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한 주민 모임에서는
어르신들의 관계를 잇고 주도적인 활동을 거들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팔구순 잔치

김정연

함께한 사람들



면목3·8동 즉석손두부, 형제야채,

면목4동 강금선님, 강성길님, 박봉숙님, 뚜레쥬르 용마산역점, 맘찬,
철민이네과일가게, 파리바게트 용마산역점, CU 중랑그랑데점,
채송화모임

면목7동 면목시장 내 간지네과일가게, 엄마손반찬, 조은꽃, BYC수정,
카멜리아쇼핑센터 내 낙원떡집

십사일반으로 전하는 면목동의 따뜻한 정(情)

| 궁리

기관을 이용하는 경로식당 어르신들께 한 달에 한 번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축하하고 맛있는 다과도 나누며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어디선가 가져온 꽃을 건네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행복이 묻어나는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과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350명이나 되는 어르신을 모두 헤드릴 수는 없기에 팔순, 구순 맞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로 준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팔순, 구순 잔치. 큰 경사이니 마을 주민과 함께 준비하여 의미 있는 잔칫상을 차려드리기로 하고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은 2022년 봄 어느 날입니다.

| 조심스레 건넨 말, 화끈한 응답

우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과일가게와 편의점으로 가봅니다. “어

왔어? 자 음료수”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해주시며 비타500을 건네주시는 철민이네과일가게 사장님입니다. “저..사장님..어르신들 생신잔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팔구순 잔치 계획을 말씀드리고, 어르신들께 드릴 과일을 해주실 수 있는 만큼만 선물로 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그래 해줄게! 뭘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이야기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어르신들께 드릴 첫 번째 선물이 과일로 정해졌습니다.

많은 고민과 조심스러움으로 다가갔지만 쿨하게, 선뜻 함께 동참하시겠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더 머쓱해집니다. 첫 번째에 이어 CU중랑그랑데점, 위시아이 꽃풍선, BYC수정, 무지개 주민 모임까지 총 다섯 군데 상점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실까요?”, “나중에 저도 같이 가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철민이네 과일가게에서는 맛있고 신선한 제철과일을 CU중랑그랑데점은 상콤 고소한 음료수와 두유, 위시아이 꽃풍선가게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꽃풍선, BYC수정에서는 따스게 신을 수 있는 양말, 무지개 주민 모임에서는 양말목으로 만든 냄비 받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 받아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포르륵.

어르신 생신날에 맞춰 상점에 들러 선물을 모은 후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니 이런 호사가 어딴대요”, “평생 기억에 남겠어”라며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2022년, 조출하지만 푸짐한 생신 축하 날이었습니다.



| 뜻 있는 행사, 널리 알리라

“뜻이 있고 의미 있는 행사니, 기관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풍성한 잔치로 해볼까요? 2023년은 좀 더 확대해서 잔칫상을 차려드리기로 합니다. 다른 팀에도 협조를 구해서 더 많은 주민과 상점 사장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복지1,2,3팀에서는 그동안 만났던 이음가게와 주민분들을 만나며 팔구순 잔치를 안내하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간 마을 활동을 하며 소통하고 관계를 잘 쌓아온 결과일까요? 역시나 기꺼이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면목동은 역시! 여전히 따뜻한 동네구나’라는 훈훈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 또한 알고 지냈던 상점과 주민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면목 4동 이음가게(크린토피아) 겸 자율방범 여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

창숙 대장님께 행사 소식을 안내해 드리러 갔습니다. “요 앞에 파리 바게트 있잖아요. 여기 언니를 내가 잘 알아. 거기도 한번 가봐요. 아니면 내가 연락 한번 해볼까?” 빵집 한 군데를 소개해 주시며 사장님과 직접 통화까지 해주셨습니다.

| 생신상 선물 약속하신 열여섯 분

“아니 뭐 대단한 거라고 사진을 찍어 민망하게” 감사함에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거절하시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 팻말을 들고 사진 찍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찰칵!’ 강성길 면목4동 자율방범대장님입니다. 대장님은 어르신들께 드릴 싱그러운 장미꽃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찍어요. 올해는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해요” ‘찰칵!’ 작년에 꽃풍선을 예쁘게 만들어주셨던 강금선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장님은 올해 어르신들 뜨끈한 식사 대접해 주라며 후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면목4동 이음가게 맘찬 사장님은 부부가 운영하고 계시는 반찬가게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 주시는 맘찬 사장님은 “어르신들이 드셔야 하니 부드러운 사라다로 준비해보려구요” 당일에 만든 신선한 사라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기대감이 커집니다. 푸레쥬르 용마산점 사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빵보다 케이크가 나올 것 같아요. 생신 잔치니” 초반에 빵을 선물로 주시다 생신상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로 변경해주셨습니다. 케이크는 기관에서 샀었는데 사장님께서 담당자의 마음을 읽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면목동 시장 안에는 마음을 모아주신 상점이 많습니다. 면목시장에 간지네과일가게에서도 매번 싱싱한 배를 한 상자씩 선물로 주셨습니다. 엄마손반찬에서도 짭조름하고 맛있는 반찬과 조은꽃에서 달달구리 과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낙원떡집 사장님은 떡값을 엄청나게 할인해서 주시다 어느 순간 “그 돈 받기도 미안하고 그냥 어르신들 잘 드시라고 전해주세요”라며 맛있는 떡을 주셨습니다. 사가정시장에서는 형제야채 사장님께서 오이며, 고구마며 정겨운 선물을 건네 주셨고, 즉석손두부 사장님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도토리묵을 맛있게 썰어서 건네주셨습니다.



파리바게트용마산점에는 매니저님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빵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말씀해주셨지만 죄송한 마음에 매번 거절했는데, 언젠가 한번은 커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봉숙 생활지원사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열심히 뜬 수세미를 주시며 “제가 뭐 할 거는 없고 수세미 만들었어요”라며 선물을 보태주셨습니다.



| 바쁘다, 바빠!

팔구순 생신상을 차리기 전날과 당일 오전은 무척 분주합니다. 전날에 1차로 선물을 받으러 갑니다. 대체로 생필품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당일에는 일주일 안에는 드셔야 할 음식을 받으러 갑니다. 반찬, 빵, 케이크, 떡 등 오전에 만든 신선품입니다. “왔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어르신들께 잘 전달해 주세요”, “수고가 많네요. 화이팅!”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더 힘이 납니다. 담당자가 선물 받으러 간 사이 전담 선생님들은 식당에 먼저 도착해 생신상 세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그사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께 안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모시고 식당으로 옵니다.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사사삭 해내니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 생신상, 잔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

16군데에서 모아주신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선물 담아가시라고 복주머니 큰 걸 준비했지만 부족합니다. 상다리가 휘청할 지경입니다.



어르신들이 도착하면 생신 잔치는 시작됩니다. 축하 노래를 부르고, 어르신들의 자랑거리를 한분 한분 말씀드립니다. 칭찬이 어색하신지 안절부절 못하시는 듯하지만, 희미한 미소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잊지 못할 날인 것 같습니다. 꼭 인사라도 드리러 가고 싶어요” 식사 후 어르신들 드릴 선물을 포장하는데 양손이 무거워 집까지 가실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문제없다며 밝게 미소 짓습니다.

무사히 치러진 잔칫상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선물 주신 분들께 사진과 인사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서. 다음에도 맛있는 빵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수고 많았어요”라며 격려

도 잊지 않습니다. 인정 넘치고 살기 좋은 중랑구 면목동! 덕분에 어르신들은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인생책 한 부분에 담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식당 환경 실천 모임

맑은 모임

이주영

함께한 사람들



막내이자 웃는 모습이 예쁜 **안향애** 어르신

주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는 **김애심** 어르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진, 모임의 든든한 존재 **김선임** 어르신

모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김기복** 어르신

웃음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어르신 환경 모임

| 웃다가 집에 가는 우리의 시작

‘어르신들과 환경을 주제로 소모임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어느 어르신과 이 모임을 함께 해보면 좋을까?’ 고민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김선임 어르신과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 나누다가 환경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환경을 주제로 함께 모여보면 어떨지 제안했는데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김선임 어르신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생기자 그동안 만났던 어르신들이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향애 어르신! 작년에 경로식당 신규 이용자로 오셨는데 몸도 건강하시고, 다른 이용자와도 잘 지내시던데... 한번 제안해 봐야겠다.’ ‘김기복 어르신도 있었지! 작년 건강 체조 모임으로 알게 되었는데 우울해하실 때도 있고, 어떤 모임이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었는데 한번 여쭙 봐야겠다.’ 두 분 모두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관심이 있다며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월에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명이 모인 첫날, 그 자리에서 친한 언니, 동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에 건강체조 하다가 만나서 이미 아는 사이도 있었고, 경로식당에서 본 적이 있지만 인사는 한 번도 나누지 않는 사이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만나서 한참 웃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름을 정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물으니, “우리 동네를 맑게 하고, 지구를 맑게 하는 맑은 모임 어때요?”라면서 안향애 어르신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너무 좋다고 하면서 모임의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 어깨가 올라갔어요!

5월 동네축제 기획 회의 때 맑은 모임 어르신과 함께 커피 가루를 활용해서 부스를 운영해 보면 어떨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에

게 해보실 수 있겠는지 물으니 흔쾌히 해보겠다고 하여 그렇게 우리만의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커피 가루를 직접 집에서 말려서 냄새 제거제로 활용해 본격 있는 김기복, 안향애 어르신! 김선임 어르신은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며,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비쳤고, 김기복 어르신은 “언니, 내가 그럼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찌꺼기 가져다가 말려서 줄게.”라고 했습니다.

‘커피 가루를 활용해서 화분 만들기’로 활동 내용을 정하고 어르신들이 사전에 모여서 역할도 나누고, 직접 활동해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좋을지 미리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찌나 열정이 넘치던지. “흙은 여기까지 넣고, 커피 가루는 한 컵 반 정도 넣으면 되고, 돌은 조금만 넣고, 이오난사는 여기에 올리면 되겠다.” 계속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메모지에 적기도 하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일에는 세 어르신 모두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오셨는데 얼마나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너무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처럼 맑고 순수해 보여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준비했던 수량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셨습니다.

“어젯밤부터 이거 할 생각에 설레어서 잠도 잘 못 잤어. 직접 해

보니까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 우리 부스가 인기도 제일 많았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물어봤는지 몰라. 아주 어깨가 올라갔다니까.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종알종알 신나게 하면서 세상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어.”라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뿌듯함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새 친구

“맨날 너무 재밌고, 많이 웃고 한다고 해서 하고 싶어서 왔어.” 김 애심 어르신이 모임에 꼭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가득 안고 안향애 어르신을 따라서 왔습니다. 7월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어르신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 어르신과 모두 안면이 있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었고, 금방 적응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한 명이 더 늘어나니 활기도 더 늘어나고, 짝수가 되니 모임도 더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 지구가 웃어요.

환경 동화책을 읽고 독후 활동으로 ‘지구가 웃어요’라는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 지구가 웃는지, 우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색칠해서 만드는 것이었는데 “너무 신기하네.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도 너무 좋다.”라며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모임 시간에 와서 “2층 경로식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면서 얘기했어. 나는 공원에 가서 운동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알려줬다니까.”라며 직접 실천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구도 웃고, 어르신도 웃고! 웃음이 넘치는 모임입니다.



| 쿠키틀을 사는 열정

천연비누 만드는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복 어르신이 비누 만들기 한다는 것을 미리 듣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시다가 다이소에 가서 직접 쿠키틀을 사 왔습니다. “예쁜 모양으로 만들면 더 좋을 거 같아서 내가 샀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서 두 가지 종류로 사봤어. 모양도 여러 가지야.”라면서 쑥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크고, 이 모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가 보아도 너무나 잘 느껴졌습니다.

| 가을행복

제2회 소소한 마을잔치 ‘가을행복’을 열게 되었습니다. 맑은 모임은 커피박 열쇠고리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보아야지.” 누구랄 것도 없이 한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김기복 어르신이 예전에 영상 보고 집에서 혼자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어르신을 필두로 유튜브를 참고해서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는 3컵이 좋겠네. 물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선생님, 차가운 물은 안돼! 반죽은 뜨거운 물로 해야지.” 반죽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담당자는 차가운 물만 준비했다가 어르신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각자의 수제비 만들던 경험을 살려 반죽을 찰지게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쿠키틀을 사용하려면 반죽 두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의논하면서 얇게도 해보고, 두껍게도 해보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딱 맞는 두께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미리 반죽을 해보면 어떨까?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우리가 미리 반죽을 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모양을 찍는 걸로 하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무엇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하고 상의하며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들어갔습니다.

“힘들 텐데 내가 더 할게. 손 아플 텐데 이리 줘.” 언니인 김선임,

김애심 어르신을 위해 동생인 김기복, 안향애 어르신이 반죽을 조금 더 빚고, 힘쓰는 것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또 같이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어서 당황할 만도 한데 어르신들의 연륜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이 조금씩 굳어져서 갈라지는 상태가 되자 “선생님, 뜨거운 물이 좀 필요해. 물을 봉투에 넣고 반죽을 더 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고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이 그 어찌나 멋있었던지요!

모두 허리가 아픈 어르신들이었는데 누구 하나 쉬겠다고 하거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완주해냈습니다. “허리 아픈 줄도 몰랐는데 끝나니까 이제야 힘드네. 오늘 허리를 얼마나 쫘뼛 동여매고 왔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웃는 어르신들! “오늘도 역시 우리는 다 팔렸다! 너무 재밌었어.”라고 말하며 또 서로 웃는 어르신들!



| 같이 줍강해요!

김선임 어르신이 혼자서 하던 줍강을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2인 1조가 되어 쓰레기봉투 한 개와 집게를 들고 용마폭포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장 트랙을 돌면서 조금 가서 줍고, 또 이만치 가서 줍고, 덩불 속에 숨겨진 곳에서 꺼내고, 아주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 살피며 다니는 어르신들!

“선생님이 처음에 왜 이렇게 큰 봉지를 주는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에 짝 차고도 못 줍고 지나쳐 온 게 많다는 게 정말 놀라워.”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줍강을 했는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쓰레기가 눈에 보여도 못 본 척 해주세요. 안 보인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모이셔야 해요.”라고 담당자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줍깅의 매력에 푹 빠지신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년도 알차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 종이컵 안 사기로 했어요!

“선생님, 우리 밑에서 종이컵 안 사기로 했어. 최근에 많이 사놓긴 했는데 그거 다 쓰면 종이컵 안 사고 각자 컵 가지고 와서 커피 마시기로 했어.” 김애심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 배웠잖아. 종이컵 쓰지 말자는 것도 복지관에 붙어있기도 하고, TV에서도 환경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니까. 경로식당 사람들한테도 가서 알려주고, 우리 모임 엄청 좋다고 막 자랑도 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맑은 모임 이름대로 동네를 맑게 만들고, 지구를 맑게 만들고 있습니다.

면목, 마을에 살다

2023년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 기록

발행일 2024년 4월 8일

발행처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발행인 김영미

편집인 강예정 권수민 이예진

함께 한 사람들 강예정 권수민 김정연 문효성 박민아 안예지
윤석호 윤지영 이예진 이운지 이주영 이지희
최영주 허준호

출판사 유페이퍼

주소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전화 02-436-0500

홈페이지 www.truem.or.kr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